

# 한계령<sup>寒溪嶺</sup>과 오색령<sup>五色嶺</sup>

## 지명에 관한 고찰<sup>考察</sup>

최병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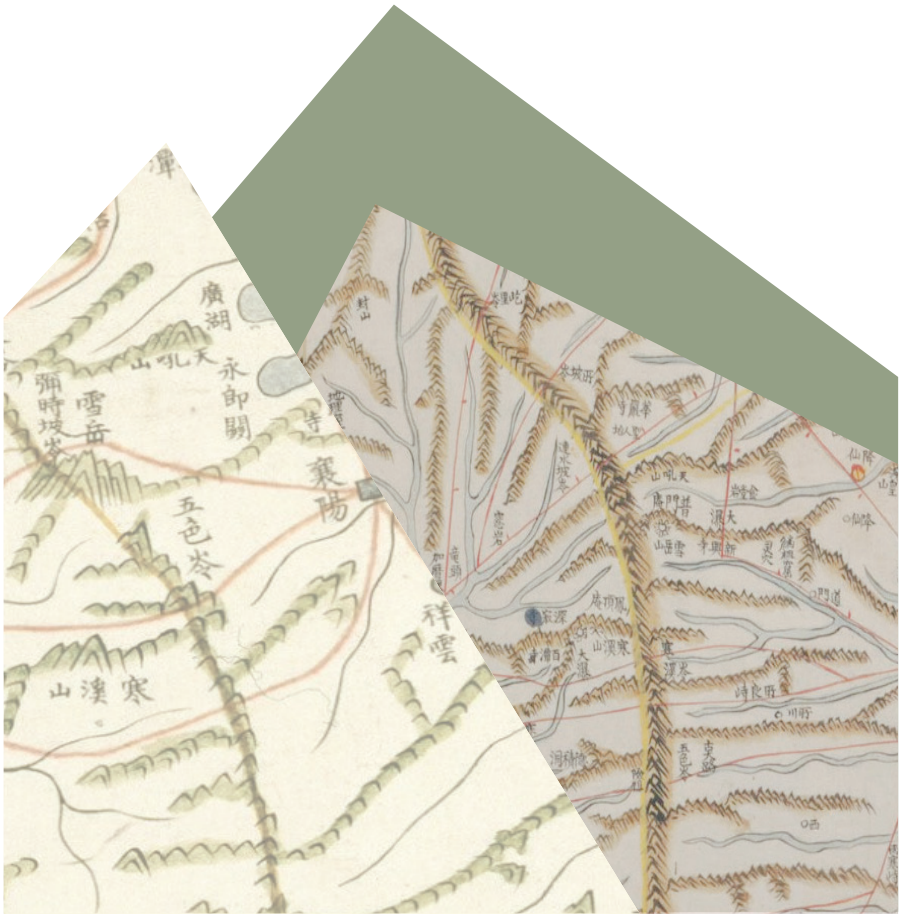


인제문화원

# 한계령<sup>寒溪嶺</sup>과 오색령<sup>五色嶺</sup>

## 지명에 관한 고찰<sup>考察</sup>

최병헌



인제문화원

# 발간사

개인에게 붙여져서 부르는 이름도 하루아침에 불리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물며 공공성을 띤 공공장소의 이름이나 지명은 말 할 나위가 없다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공공성을 띤 지명은 반드시 거기에는 역사성과 그 지역에 따른 전설과 유래가 되는 근거가 따르게 마련이며,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없습니다.

인제군이 탄생한 이래 면면히 전 국민과 지역 군민에게 불리어져 오며 지금도 친숙하게 온 국민의 정서와 노랫말 속에까지 서려 있고 오르내리는 한계령이라는 지명이 일부 지역에서 느닷없이 오기된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일에 대해 개탄해마지 않습니다.

다행이도 이와 같은 와중에 최병헌 인제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님께서 고증과 옛 문헌을 발굴조사하고 고증을 거쳐 체계화시킨 한계령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는 바이며 차후 한계령 지명에 대하여 더 이상 이견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생각합니다. 최소장님께서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으며 금번 한계령지명 책자발간이 나오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인제문화원장 남 덕 우

# 한계령<sup>寒溪嶺</sup>과 오색령<sup>五色嶺</sup> 지명에 관한 고찰<sup>考察</sup>



## 차례

I. 들어서며	5
II. 설악산(雪嶽山)과 한계산(寒溪山)의 관계	7
III. 한계령(寒溪嶺)의 지명(地名) 유래	11
IV. 한계령(寒溪嶺)과 오색령(五色嶺)의 비교	17
V. <조선시대 양양부(襄陽府) 소동라령(所冬羅嶺)의 고찰(考察)>논문 검토	31
VI. 나서면서	43
참고자료	45

# I. 들어서며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한계령(寒溪嶺)이란 지명을 오색령(五色嶺)으로 고쳐야 한다는 운동이 양양군(襄陽郡)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의 한계령이 과거에는 오색령이었는데, 일제 강점기인 1930년 이후부터 지도 표기에서 사라지면서 현재 한계령으로 불리는 것이 안타까워 옛 이름을 되찾겠다는 주장이다. 반면 인제군(麟蹄郡)에서는 한계령이란 이름은 과거에는 소동라령(所冬羅嶺)이라 하였으나, 한계령으로 부르기도 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쌍방이 지명을 고치겠다는 편과, 지명을 지키겠다는 편으로 갈라져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 문제는 비록 어재와 오늘의 일이 아니라 가깝게는 1994년부터 양양군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단이 되었으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朝鮮) 왕조시대(王朝時代)부터 양양과 인제군에 관한 기록들이 서로 상이하게 전해오고 있다는 것이 그 시초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여지도서(輿地圖書)』 산천조 편에는 산맥의 위치를 북에서부터 남으로,

인제현: 미시령⇒설악산⇒한계산⇒**오색령**⇒박달령

양양부: **오색령**(소동라령?)⇒필여령⇒조침령⇒**소동라령**(한계령)⇒구룡령

순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쉽게 판단할 일도 못되고, 지명(地名)이란 것은 시의(時議)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개명(改名)되는 일도 허다하기에, 필자는 1994년에 양양(襄陽)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 했을 때부터 지명을 고치려면 과거의 이름 즉 소동라령(所冬羅嶺) 또는 ‘바드랏재’로 하던가 아니면 현재의 지명에 따라야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라 자제하지는 의견을 수 없이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른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양문화원에서는 2011년에 한국문화원연합회(韓國文化院聯合會)가 주최한 제26회 전국향토문화 공모전(全國鄉土文化公募展)에서 〈오색령(五色嶺) 지명에 관한 고찰〉이란 논문으로 논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 문화원강원도지회(文化院江原道支會)가 주최한 강원도향토문화연구발표회(江原道鄉土文化研究發表會)에서 〈조선시대 양양부(襄陽府) 소동라령(所冬羅嶺)의 고찰(考察)〉이란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먼저 수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축하할 일이고, 깊이 있게 연구한 노고는 높이 살 일이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사실과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검증도 없이 공인단체(公認團體)가 이를 묵인한 채 손을 들어 주었다는 것이 마음 아프다. 하여 차제에 지금의 한계령(寒溪嶺)과 오색령(五色嶺)이란 두 지명에 관하여 깊이 있게 살펴보고,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과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이란 두 논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고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고자 한다.

## II. 설악산(雪嶽山)과 한계산(寒溪山)의 관계

옛 지도를 살펴보면 설악산과 한계산(寒溪山)은 별개의 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즉 설악산은 백두대간(白頭大幹)의 본줄기 이고, 백두대간에서 서쪽으로 뻗은 가지를 한계산(寒溪山)이라고 부르며, 또 그렇게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문헌(文獻)이나 사설문집(僞設文集) 등을 살펴보면

① 한계산: 동쪽으로 60리 이다. 곧 양양 설악산 서남의 한가지로 본래 한산이기는 하나 달리 부르는 이름이다. 《대동지지》<sup>1)</sup>

② 한계산: 고을 동쪽 50리에 있으며, 매우 높고 크면서도 기이하고 험준하다. 그 동쪽은 바로 양양부의 경계인데 양양 사람들은 설악산이라고 부른다. 《동국여지지》<sup>2)</sup>

③ 설악(雪嶽)은 인제(麟蹄)와 양양(襄陽) 두 군(郡)에 걸쳐 있으나 4분의 3이 인제(麟蹄)다. 사자봉(獅子峰)의 동쪽은 청봉(晴峰)이라고 한다.(雪

---

1) 대동지지(大東地志): 1864에 김정호가 편찬한 우리나라 전국 지리지(地理志). 《대동여지도》와 짝을 이루는 지리지로, 《동국여지승람》의 오류를 정정하고 보완하여 펴냈다. 8도의 군현(郡縣)을 기록한 지역별 지지(地志)와 산천·국방·도로·강역·역사·지리 등의 주제별 지리학을 결합하여 지도 서술의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2)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1660-74에 반계 유형원(柳馨遠)이 편찬한 사찬(私撰) 전국 지리지.

嶽據麟襄二州.而麟得四之三.獅子峰之東.爲晴峰) 정범조(丁範祖)<sup>3)</sup>의 〈雪嶽記〉

④ 옛 절 즉 한계사(寒溪寺)다. 양양에서 소솔령(所率嶺)을 넘어 인제로 이어지는 옛길이다. 절을 경유해서 그 아래로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필히 그 절에서 투숙을 해야 한다. 절의 스님들은 사람들 접대하는 것이 힘들고 감내하기 어려워 머물 수가 없으므로 버려두고 떠나서 빈 채로 버려졌다. 지금은 즉 무너지고 부서진 지 이미 오래여서 옛 터만 남아있다. 주춧돌의 흔적을 보면 큰 절이었다. **이산을 인제 있는 사람들은 한계라 하고, 양양에서는 그곳을 설악이라고 하나 사실은 한 산이다.** (古寺即寒溪寺自襄陽所率嶺抵麟蹄舊路經由寺下往來人必投宿于寺寺僧不堪迎接之苦不肯居住遂致空廢今則頽圯已久只有舊基砌礎宛然曾是巨刹也此山在麟蹄爲寒溪其在襄陽者曰雪岳實一山也.) 구사맹(具思孟)의 〈寒溪山〉

⑤ 한계는 설악산 서쪽에 있는데 남계역(藍溪驛)<sup>4)</sup>을 지나 물 따라 아래로 내려가다 고원통(古圓通)을 경유해서 한계사(寒溪寺)로 빠졌다. (寒溪: 寒溪在雪嶽之西.由藍溪驛下流過古圓通.入寒溪寺) 성해응(成海應)<sup>5)</sup>의 〈記關東山水〉

⑥ 설악은 지극히 산이 높고 가팔라서 8월이면 눈이 시작해서, 하지(夏至)가 되어야 녹기 시작한다고 해서 이름이 설악(雪嶽)인데, 그 음지쪽

3) 정범조(丁範祖): 1723-1801. 조선 후기의 대신.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법세(法世), 호는 해좌(海左).

4) 남계역(藍溪驛): 남교역(嵐橋驛). 북면 용대 2리에 있던 역.

5) 성해응(成海應): 1760-1839. 조선 후기의 학자. 폐쇄적인 성리학 연구방법을 비판하고 고증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한학(漢學)과 송학(宋學)의 결합을 주장했으며, 경학(經學)에 대한 많은 저술을 남겼다. 본관은 창녕. 자는 용여(龍汝), 호는 연경재(研經齋).



이 양양(襄陽)이고, 그 양지쪽이 인제(麟蹄)다. (雪嶽極高峻. 八月始雪. 至夏始消. 名雪嶽. 其陰則襄陽. 其陽則麟蹄) 성해응(成海應)의 <記關東山水>

⑦ 한계(寒溪)의 동쪽을 설악(雪嶽)이라 하고 설악의 남쪽을 오대(五臺)라 하는데, 산이 높고 커서 깊디깊다. (寒溪東爲雪嶽. 雪嶽南爲五臺. 山高大深邃) 허목(許穆)<sup>6)</sup>의 <五臺山記>

⑧ 설악(雪嶽): 양양(襄陽)에서 바다를 따라 올라가다가 서북(西北)쪽으로 50리를 가면 지극히 높은 산이 솟아 있는데, 중추(中秋)에 눈이 오기 시작하면 하지(夏至)가 되어서야 눈이 녹는다. 그 서쪽에 있는 한계(寒溪)의 남쪽 봉우리는 절벽이 위험한데 그 맨 위는 몹시 높고, 그 아래는 더욱 깊다. 산석(山石)의 빼어난 정기는 높고 험하여 명상(名狀)하기 어렵다. 폭포는 300척(尺)으로 반석(盤石)을 감돌아 흐르며 곡구(谷口)인 원통(圓通)으로 빠져나가는데 36개의 돌다리를 건너야 한다. (其西寒溪南峯危壁. 其極絕頂. 其下深淵. 山石神秀巖硯. 不可名狀. 懸瀑三百尺. 川流盤廻. 出圓通谷口. 渡三十六石梁) 허목(許穆)의 <東遊博物>

⑨ 부림역(富林驛)<sup>7)</sup>을 출발하여 미수과(彌首坡)와 한계(寒溪)의 물이 합류하는 곳을 지나면 한계산(寒溪山)인데, 령(嶺)을 이웃한 큰 산으로 풍악(楓嶽)과 오대산(五臺山) 사이에 있다. (出富林驛彌首坡. 寒溪之水. 合流過之. 寒溪之山. 嶺傍大山. 在楓岳. 五臺間) 허목(許穆)의 <三陟紀行>

6) 허목(許穆): 1595-1682. 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 남인으로 17세기 후반 2차례의 예송(禮訟)을 이끌었으며 군주권 강화를 통한 정치·사회·개혁을 주장했다.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화보(和甫). 문보(文父), 호는 미수(眉叟)·대령노인(臺嶺老人).

7) 부림역(富林驛):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있었던 역으로 원통역(圓通驛)이라고도 함.

⑩ 설악(雪嶽): 설악은 양주(襄州)<sup>8)</sup>에서 서북(西北)50리에 있으며, 그 서쪽이 한계(寒溪)이고, 그 남쪽은 오대(五臺)로 산이 무척 높고 커서 중추(中秋)에 눈이 오기 시작하고 하지(夏至)에 눈이 녹기 시작해서 옛적부터 설악(雪嶽)이라고 불렀다. 또 그 바위로 된 봉우리들의 돌 빛이 희기가 눈 같음으로 설악(雪嶽)이라 했다고도 한다.(雪嶽: 雪嶽在襄州西北五十里. 其西寒溪. 其南五臺. 山極高. 仲秋始雪. 仲夏雪消. 故曰雪嶽. 又其巖巒石色. 潔白如雪. 故亦曰雪嶽) 이만부(李萬敷)<sup>9)</sup>의 《地行錄》

라고 기록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한계산(寒溪山)은 별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크게 보면 설악산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설악산(雪嶽山)은 설산(雪山)·설악산(雪岳山)·설화산(雪華山)<sup>10)</sup>·백화산(白華山)<sup>11)</sup>·청반산(靑盤山)<sup>12)</sup>·금강산(金江山)<sup>13)</sup>·금산(金山)<sup>14)</sup>이라는 또 다른 별호(別號)를 가지고 있다.

8) 양주(襄州): 지금 양양(襄陽)의 고호(古號).

9) 이만부(李萬敷): 조선 영조 때의 학자(1664-1732). 자는 중서(仲舒). 호는 식산(息山). 문장에 능하였으며, 글씨는 고전 팔분체(古篆八分體)에 일가를 이루었고, 《주역》에 밝았다. 저서에 《역통대상편람》, 《식산집》 따위가 있다.

10) 설화산(雪華山): 불가(佛家)에서 사용.

11) 백화산(白華山): 불가(佛家)에서 사용.

12) 청반산(靑盤山): 일본식 이름. 황호(黃虜)의 〈佐護望雪山〉에 나오는 명칭.

13) 금강산(金江山): 한계산성 내에 있는 천제단의 비문(碑文)에 표기.

14) 금산(金山): 한계산성 내에 있는 천제단의 비문(碑文)에 표기.

### III. 한계령(寒溪嶺)의 지명(地名) 유래

한계령(寒溪嶺)은 영서북부 내륙지역인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뺏은 산맥으로, 대청봉(大靑峰) 남서쪽에 있는 고개로 양양군과 경계를 이룬다. 한계령이란 이름은 령(嶺)이 소재한 곳이 한계산(寒溪山) 줄기와 맞닿아있기 때문에 한계산(寒溪山)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고, 최초의 이름은 순수하게 우리말로써는 ‘바드랏재’라 부르고, 한자 표기상으로는 ‘소동라령(所冬羅嶺)’이라고 하였다. 소동라령을 소등라령(所等羅嶺) 또는 소동라령(所東羅嶺)으로 표기 한 문헌도 있고, 설악령(雪嶽嶺)<sup>15)</sup>으로 표기한 지도도 눈에 띈다.

소등라령(所等羅嶺) 또는 소동라령(所東羅嶺)이란 지명은 별개의 지명이 아니라 소동라령(所冬羅嶺)의 이두식 표기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는

① 한계수(寒溪水)는 곡백담(曲百潭) 물과 함께 설악(雪岳)의 한계산(寒溪山)에서 발원하여 (인제현 동쪽 50리에 있다.) 여러 골짜기의 물이 합쳐 하나가 되어 합강정(合江亭)에 이르러 기린수(基麟水)와 합류한다. 《신증

15) 설악령(雪岳嶺): 대한전도(大韓全圖), 1900년경에 제작된 지도.

동국여지승람》·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sup>16)</sup>의 〈산수십원기〉

② 미륵수는 하나는 소동라령(所冬羅嶺)에서 나오고, 하나는 소파령(所波嶺)에서 나오고, 하나는 서화현(瑞和縣)에서 나오고, 하나는 기린현(基麟縣)에서 나온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다산 정약용의 〈산수십원기〉

③ 설악(雪岳): 부 서북쪽 50리에 있는 진산이며 매우 높고 가파르다. 8월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 지었다. 소동라령(所冬羅嶺): 부 서쪽 60리에 있으며 겹쳐지고 포개진 산맥에 지세가 험하고 궁벽지다. 예전에는 서울로 통하는 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부 산천조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①의 한계산(寒溪山)에서 발원하는 물이 곧, ②의 소동라령(所冬羅嶺)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동일한 지명(地名)임을 알 수 있다.

설악(雪嶽)이란 이름은 《여지승람(輿地勝覽)》 또는 《문헌비고(文獻備考)》<sup>17)</sup>에는

“중추(仲秋)가 되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여름에 이르러 녹는다.  
(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焉)”

16)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유형원(柳馨遠)·이익(李瀾)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여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했다. 실용지학(實用之學)·이용후생(利用厚生)을 주장하면서 주자 성리학의 공리공담을 배격하고 봉건제도의 각종 폐해를 개혁하려는 진보적인 사회개혁안을 제시했다. 본관은 나주(羅州). 소자는 귀농(歸農). 자는 미용(美庸)·송보(頌甫), 호는 사암(俟菴). 자호는 다산(茶山)·탁옹(擇翁)·태수(苔叟)·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 당호(堂號)는 여유(與猶).

17) 문헌비고(文獻備考):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와 문물에 관한 기록을 모은 책.

하여 설악이란 명칭이 붙게 되었다고 써어 있고, 또 금원(錦園)<sup>18)</sup>여사가 쓴 〈湖東西洛記〉에는

“돌이 눈 같이 희서 옛적부터 설악이라 했다(石白如雪故名雪嶽)”

라고 기록하고 있다. 설악(雪岳)·설산(雪山)·설화산(雪華山)은 전자의 뜻을 따른 것이고, 백화산(白華山)은 후자의 뜻을 따른 것이라 본다. 따라서 한계산(寒溪山)·소동라령(所冬羅嶺)도 전자의 뜻을 좇아서 지어진 이름으로 풀이 할 수 있으니 같은 산이 분명하므로, 소동라령(所冬羅嶺)이라고 불리던 이름이 자연스럽게 한계령(寒溪嶺)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소동라령과 한계령이 동일 지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들라면 다음 지도를 살펴보면 될 일이다.

두 지도에서 보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뻗은 가지를 한계산(寒溪山)이라 표기하고, 〈해동지도(海東地圖)〉에는 그 바로 옆에 소동라령(所冬羅嶺)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오색령(五色嶺)은 한계산(寒溪



● 그림1. 해동지도

18) 금원(錦園): 조선 현종 때의 여류시인(1817-?), 김덕희(金德熙)의 소실로, 젊어서 여러 지방을 유람하였고 운초 등과 어울리며 많은 시를 남겼다. 저서에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가 있다.



●그림 2. 동여도

山) 북쪽 상단에 표기 하였으며, <동여도(東輿圖)>에는 소동라령 위치에 분명히 한계령(寒溪嶺)이라 표기 하고, 그 남쪽 하단에 오색령(五色嶺)을 표기하고 있음을 볼 때, 소동라령과 한계령은 한 지명임을 유추할 수 있다.

소동라령이란 지명이 한계령(寒溪嶺)으로 개명(改名)된 시기는 정확히 밝힐 수 없으나 여러 종류의 고지도(古地圖)를 살펴볼 때 소동라령이란 지명은 18세기 전반기까지 지도상에 표기 되어 있고, 한계령이란 지명이 지도상에 처음 등장한 년대는 18세기 후반으로 추정 할 수 있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양양도호부 산천조에,

소동라령: 소동라령은 부(府)의 서쪽 60리에 있으며, 겹쳐지고 포개진 산맥에 지세가 험하고 궁벽하다. 예전에는 서울로 통하는 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소동라령으로 통하던 도로를 폐(廢)함<sup>19)</sup>으로 인하여 소동라령이란 지명도 점차 소멸(消滅)된 것으로 보이나, 양양군수(襄陽郡守)

19) 성종(成宗) 24년 계축(癸丑:1493)

조관현(趙觀顯)이 편찬한 『양양군읍지(襄陽郡邑誌)』<sup>20)</sup>〈관애(關陔)〉 편에는

“인제 한계령 경계까지는 80리”

라고 기록되어 있고, 김몽화(金夢華)<sup>21)</sup> 『칠암문집(七巖文集)』〈유설악록(遊雪嶽錄)<sup>22)</sup>〉에는

“에서 **한계령(寒溪嶺)**으로 가다가 물가에 이르니 설만한 돌이 있기에 가마를 쉬게 하고, 계곡물을 떠서 점심을 먹었다. 계곡 위로는 커다란 바위들이 있고, 좌우로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 이름을 정차암(停車巖)이라 하였다. 령(嶺)을 넘으면 오색이라고 한다. 돌산은 가파르기가 널빤지를 넣어놓은 듯 한데, 역시 설악의 한 줄기다. 이곳 오색(五色)에 머물러 잤다. (此歟向寒溪嶺遇水石佳處舍輿息肩酌溪水澆飯而喫 溪上有巨巖巖之左右行楓輝映請名之曰停車巖 踰嶺是爲五色 石峰峭板羅列亦雪嶽之一支也 止宿于五色村”

이라 하였음을 볼 때, 그 이전부터 소동라령과 한계령이란 두 지명이 함께 불려 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이후 한계령이란 지명은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발간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나 1950년대에 제작된 〈미군군사지도〉에 등재된 것이 확인되고 있으나, 5년 뒤인 1959년 인제군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한계령(寒溪嶺)이란

20) 양양군읍지(襄陽郡邑誌): 광무(光武)3년(1899년). 규장각도서 10956.

21) 김몽화(金夢華): 1723-1792. 본관은 선산. 자는 성신(聖臣), 호는 칠암(七巖). 문간공(文簡公) 김취문(金就文)의 후손이며, 아버지는 만와공(晩窩公) 김유수(金裕壽)이다. 어려서부터 근면성실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 1754년 진사가 되고 이어서 성균관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4월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설서·승지를 거쳐 한성좌윤에 올랐다.

22) 유설악록(遊雪嶽錄): 1787년 씀.

지명으로 지정(指定)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여, 국무원(國務院) 고시(告示)를 거쳐 명실공이 한계령(寒溪嶺)이란 지명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볼 때 이때까지 두 지명 즉 소동라령과 오색령 또는 한계령과 오색령을 혼용(混用)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이란 논문에서 예시한 1959년 인제군(麟蹄郡) 북면(北面)에서 작성 보고한 지명조사철(地名調査綴)에, 한계령에 대해

영동과 통하는 오색이영의 낮은 영으로서 한계지역에 있다고 하여 한계령이라고 하나 오색이영이라고도 함

하였는데, 이 내용 또한 현재와 같이 양양(襄陽)에서 보는 관점과 인제에서 보는 관점이 각기 다르고, 위치상으로는 현재 한계산(寒溪山)의 위치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줄기에 위치하고 있어 거시적(巨視的)으로 본다면 동일 지명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거론하기로 한다.



## IV. 한계령(寒溪嶺)과 오색령(五色嶺)의 비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계령(寒溪嶺)이란 지명은 1787년 김몽화(金夢華)가 쓴 <유설악록(遊雪嶽錄)>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오색령(五色嶺)이란 지명은 그 보다 훨씬 전인 1596년 『선조실록(宣祖實錄)』에 등장한다. 그런데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sup>23)</sup>에서는 『여지도서(輿地圖書)』를 인용하여

1757년 양양부 지도에는 북쪽에 있는 령(嶺)으로서 **오색령(五色嶺)**, **필여령(弼如嶺)**, **조침령(阻沉嶺)**, **소동라령(所冬羅嶺)**, **구룡령(九龍嶺)** 등의 다섯 개의 령이 북에서 남으로 차례로 열거되어 있으며, 북쪽의 **오색령이 설악산의 주봉에 가장 가깝다**. 이로써 보면 오색령과 소동라령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소동라령은 **오히려 구룡령에 인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도상에서 도로의 표시는 유일하게 소동라령의 기능이 우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설악산의 주봉에 근접한 오색령의 위치로 볼 때 지도상의 오색령은 현재의 한계령임이 분명하다.

라며, 지금의 한계령이 과거부터 오색령(五色嶺)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 2011년 10월 제26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논문부문 최우수상 수상.



●그림 3. 조선지도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조선지도(朝鮮地圖:1756-1768)에 오색령이 한계산 북쪽 영서(嶺西)지역에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무렵부터 제작된 <해동지도(海東地圖)> <팔도지도(八道地圖)> <좌해지도(左海地圖)> 등에서 오색령(五色嶺)과 소동라령(所冬羅嶺)이란 지명이 바뀐 상태로 전해왔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로 비교해 검토해 보자.

### 1. 지명 표기상의 오류(誤謬)

소동라령이 한계령(寒溪嶺)이냐? 오색령(五色嶺)이냐? 현재의 한계령(寒溪嶺)이 오색령이냐? 하는 논란은 고문헌(古文獻)이나 고지지(古地誌)에 전해오는 내용이 시대에 따라 각각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같은 시기 같은 문헌(文獻)에서도 소동라령과 오색령이 서로 위치가 바뀐 채 기록으로 전해오고 있다. 따라서 동일 지도에 소동라령과 오색령이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본문(本文)에서는 소동라령과 오색령은 별개의 지명으로 보고, 한계령과 오색령에 관한 표기상의 오류(誤謬)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몇 가지 자료들을 예로 들자면

#### ① 여지도서 산천조(1757-1765)

인제현:미시령⇒설악산⇒**한계산**⇒**오색령**⇒박달령

양양부:**오색령**(소동라령?)⇒필여령⇒조침령⇒**소동라령**(한계령)⇒  
구룡령

② 연려실기술 지리전고 총지리

석과령⇒설악.한계산⇒**오색령**⇒연수과령

③ 택리지(1751)

연수령⇒**오색령**⇒설악.한계산⇒오대산

④ 여지도<양양부> 지도

**오색령**(소동라령?)⇒필여령⇒조침령⇒**소동라령**(한계령)⇒구룡령

⑤ 산경표(1913)

미시령⇒설악⇒**오색령**⇒연수령⇒조침령⇒구룡령⇒오대산

등을 들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소동라령(所冬羅嶺)이란 지명은 설악산의 이명(異名)인데, 어떻게 하여 구룡령(九龍嶺)에 인접해 있을까를 생각해 볼 일이다. 현재 쟁점이 된 것처럼 과거에도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①과 같이 인제와 양양이 각기 달리 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의 주봉에 근접한 오색령의 위치로 볼 때 지도상의 오색령은 현재의 한계령임이 분명하다.’<sup>24)</sup>고 주장을 한다면, 『여지도서(輿地圖書)』 인제현 산천 조에 실린

미시령을 지나면 **설악산**(雪岳山)이고 설악산을 지나면 **한계산**(寒溪山)이다. 한계산을 지나면 **오색령**(五色嶺)이고, 오색령을 지나면 기린(基麟)의 **박달령**(朴達嶺)이다.

24)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2011.10 이종우, 이규환

라는 기록은 잘못되었다고 부정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인제현 산천 조에 소동라령(所冬羅嶺)이 빠지고 오색령(五色嶺)이 등장하게 된 것은 뒤에 다시 영로(嶺路)편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소동라령으로 통하던 길을 폐하고<sup>25)</sup> 보다 편리한 오색령으로 새로 길을 개척한 뒤에 나온 기록물이기 때문이란 점이다. 이에 대해서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그리고 지도상에서 도로의 표시는 유일하게 소동라령의 기능이 우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설악산의 주봉에 근접한 오색령의 위치로 볼 때 지도상의 오색령은 현재의 한계령임이 분명하다.

라고 밝힌 것처럼 이미 험조하여 폐쇄한 소동라령에 도로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오색령과 소동라령의 지명이 바뀌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선부르게 단정하기 보다는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인제와 양양부 산천 조를 비교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일이다.

## 2. 방위(方位) 및 리정(里程) 검토

〈별표〉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양양부 편을 보면 **설악산은 서북향 50리**이고, 소동라령은 서쪽으로 60리로 표기 되어 있으나, 『양양읍지(襄陽邑誌)』에는 오색령은 서쪽 70리에 있고,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서쪽 50리**에 있다고 각기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25) 성종(成宗)24년(1493)에 폐지.



●그림 4. 여지도 (인제현)

이 그림은 <여지도(輿地圖)>인제현(麟蹄縣) 지도이다. 그림 하단 중앙에는 소동라령(所東羅嶺)이 표기 되어 있고 그 우측에 오색령(五色嶺)이 표기되어 있다. 백두대간의 주능선으로 북에서 남으로 진부령⇒석파령⇒미시령⇒설악산.한계산⇒필예(必曳)⇒소동라령으로 이어지고, **오색령은 주능선에서 벗어나 동남향으로 뻗어 있는 가지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10여리의 차이가 난다고 본다.**

이 지도의 특징은 서북쪽을 위로 향해 그린 점이다. 읍치의 산줄기가 서북쪽으로 부터 뻗어 내렸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입체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설악산에서 필예(必曳)로 이어지는 능선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주능선에 위치한 ‘진부령⇒석파령⇒미시령⇒설악산.한계산⇒필예(必曳)⇒소동라령’에서 동남으로 뻗어있는 가지가 맞닿아 있는 부분은 보는 방위(方位)에 따라 겹쳐지게 됨으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나타나 있듯이 ‘미시령⇒설악산⇒**한계산(소동라령)⇒오색령⇒박달령**’ 혹은 ‘**오색령⇒필여령⇒조침령⇒소동라령⇒구룡령**’으로 표기 할 수밖에 없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김수증(金壽增)의 <유곡연기(遊曲淵記)>에서

각형(覺炯)이 물으니 지한(池漢)이 상설악(上雪嶽)<sup>26)</sup>을 가리키며 봉정암이 있는 곳은 동쪽 골짜기 이고, 백연이 있는 곳은 동북향으로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어둠이 거치지 않으며, 오색령 위 필여봉이 있는 곳은 동남방이고, 이곳의 북쪽은 산 모양이 평평하게 보이는데 미시령이라고 한다.(問於覺炯, 池漢而指點上雪嶽鳳頂庵在東曲百淵在東北而嵐靄杳冥不可辨五色嶺上筆如峯在東南而在北隆然平看者彌是嶺也)

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오색령 위 필여봉’ 이라 한 것을 보면, 다시 말해서 ‘필여봉 아래 오색령’이란 말과 같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자면 설악산⇒한계산⇒필여봉⇒오색령 순으로 기록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기행문이란 현장을 돌아보고 쓰는 것이 아닌가? 이 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역도>와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案地圖)>를 다시 소개한다.

<동역도(同域圖)>를 자세히 보면 주능선인 백두대간에서 가리봉과 이어지는 부분에서 동쪽으로 뻗은 가지가 간단히 생략되어 있다. 이 생략



●그림 5. 동역도

26) 상설악(上雪嶽): 청봉에서 동남쪽을 향하여 오색령과 걸쳐 있는 산맥을 말한다.

된 부분이 오색산(五色山)이다.<sup>27)</sup> 이곳은 인제에 소재한 추동천(楸洞川)의 발원지로 뒤에 다시 거론하겠지만, 이곳이 오색령(五色嶺)으로 추측되는 곳이다. 그곳에서 북쪽으로 올라 가다가 서쪽으로 뺀 가지가 한계산(寒溪山)이다.

〈동역도〉는 다른 지도보다는 비교적 상세하게 그리고 있으며, 군현(郡縣)을 비롯하여 중요 지점에 十을 비롯하여 세로로 그어진 선의 숫자가 다른 문자가 자주 적혀 있다. 十은 10리, 卅은 20리와 같이 세로가 늘어날수록 십리 단위의 증가를 의미하며, 도로로 연결된 앞뒤 지점 사이의 리정(里程)을 표시한 것으로 설악산과 오색령의 지명 옆에 양오(陽五)라 표기하여 양양에서 각각 50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案地圖)〉는 양양부(襄陽府) 편이다. 주요한 부분만 나타냈으나 설악산에서 읍치(邑治)까지 뺀 내린 산줄기의 모습을 통해 고을의 산세에 대한 지도 작성자의 관념을 엿볼 수 있다. 지도 위쪽의 백두대간 위에는 중요 고개의 이름이 노란색 사각형 안에 쓰여 있다. 이 중 훼손(毀損)되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오색령(五色嶺)이다. 도로



● 그림 6.  
비변사인방안지도(양양부)

27) 〈비변사인방안지도〉 참조.

### 〈별표〉

자료명	인제현			양양부		
	산.령 명	방위	리정	산.령 명	방위	리정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한계산 소동라령	동동	50리 72리	설악 소동라령	서북 서	50리 60리
관동읍지	설악산	동	50리	연수과령 오색령 필여령 박달령	서북 서 서 서	75리 50리 50리 50리
읍지 (인제1843.양양1823)	설악산	동	50리	오색령	서	70리
강원도지 (1940)	설악산 소동라령 소과령 미시과령	동동 동북 북	- 7리 8리 8리	오색령	서	7리
대동지지 (1866)	한계산 연수과령 오색령	동동 동	60리 75리 70리	오색령 필여령 소동라령	서 서 서	50리 50리 60리
여지도서 (1757-)	설악산	동	50리	오색령 필여령 소동라령	서 서 서	50리 40리 60리

는 적황색·황색의 순으로 중요성을 표시하였다. 지도 위쪽의 주기(注記)에는 황색 도로 위에 있는 오색령(五色嶺)과 구룡령(九龍嶺)이 대로(大路)이며, 요해처(要害處)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진짜 대로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다른 고개에 비해 중요한 도로라는 뜻 정도라고 생각된다.

### 3.영로(嶺路)로서의 기능

《만기요람(萬機要覽)<sup>28)</sup>》〈軍政編〉‘관방(關防)’을 보면,

28) 만기요람(萬機要覽): 조선시대 국왕의 정부총람(政務總覽)에 참고가 되는 각종 자료를 수록한 책. 서영보(徐榮輔: 1759-1816)·심상규(沈象奎: 1766-1838) 등이 순조의 명으로 편찬.



◇ 양양의 영로: **오색령** · 필여령은 기린통로. **소동라령** · 저침령 · 구룡령은 강릉과의 경계. 형제현 · 양한치는 모두 서쪽통로

◇ 인제의 영로: 미시령 고성 통로. 흘리령 · 탄둔령 모두 북쪽통로. 두모치 양구와의 경계. 건리치 흥천과의 경계

로 기록 되어 있다. 여기서도 오색령과 소동라령의 위치가 여지도나 팔도지도 해동지도에 나타나 있듯이 위치가 바뀌어 기록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조선 시대의 역로(驛路)를 따라 추정해 보고자한다. 인제(麟蹄)를 통과하는 역로(驛路)는 대체로,

- ① 천감(흥천)⇒건이원⇒마로역⇒부림. 원통역⇒남교역⇒가역원.갈역⇒진부원⇒운근(고성)
- ② 부림. 원통역⇒임천⇒조진(통천)
- ③ **부림. 원통역⇒신원⇒(한계령.소동라령)⇒오색(양양)<sup>29)</sup>**
- ④ 부림. 원통역⇒남교역⇒가역원.갈역⇒미시령⇒원암(고성)
- ⑤ 부림. 원통역⇒함춘역(양구)
- ⑥ **강선(양양)⇒오색령(양양)⇒기린⇒원대⇒건이원⇒천감(흥천)**



덕적⇒인제

와 같이 6개 노선(路線)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양양(襄陽)으로 통하는 노선은 ③노선과 ⑥노선이 있다. 그런데 앞서서도 언급 하였듯이, 두 개의 노선이 공존(共存)한 것이 아니라 ③노선을 폐지(成宗24:1493)한 이후 ④노선을 개척하였다가 얼마 후에 다시 ⑥노선을 개척한 것으

29) (대동여지도)내 오색령이라 표기 되어 있는 윗 부분으로 지명이 명시되지 않은 곳이 곧 소동라령(한계령)임.

로 보인다.<sup>30)</sup> 오색령을 경유하는 로선(路線)은 지금의 한계령이 아니라 그 보다 조금 떨어져 남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지도에는 이곳을 '삼거리'로 표기하고 있는데, 양양(襄陽) 오색(五色)에서 이곳으로 오르다 정상 삼거리에 이르러 오른편 길을 택하면 인제(麟蹄)의 가리산리(加里山里)로 통하게 되고, 왼편을 택하면 인제읍 귀둔리(貴屯里) 또는 과거 춘주(春州)에 속했던 기린면(麒麟面) 방동리(芳東里)와 진동리(鎭東里)로 통하게 된다.



●그림 7. 삼거리 정상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선조29(1596.2.1.)년에

적병이 깊숙이 영동으로 침입하면 추지령 미수와 오색령 백봉령 등의 곳은 영을 넘는 길이 될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였듯이 관방(關防)으로서의 기능(機能)을 담당하였는데, 소동라령(所冬羅嶺)이 누락 된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듯이 ③노선이 이미 폐지되고 ⑥노선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오색령: 부의 서쪽 50리에 있으며 설악의 남쪽에 접해있다. 《輿地圖

30) 『수성지(水城志)』 간성편 에 '원암역은 군 남서쪽 60리에 있는데 미시파령(彌矢坡嶺) 입구에 처음 개설했다가, 양양의 오색역으로 옮겼다가 다시 상운역(祥雲驛)으로 옮겼다.'고 하였다.

書》양양부 편

◇소동라령: 부의 서쪽 60리에 있다. 오색령: 부의 서쪽 50리에 있다. 《關東邑誌》 양양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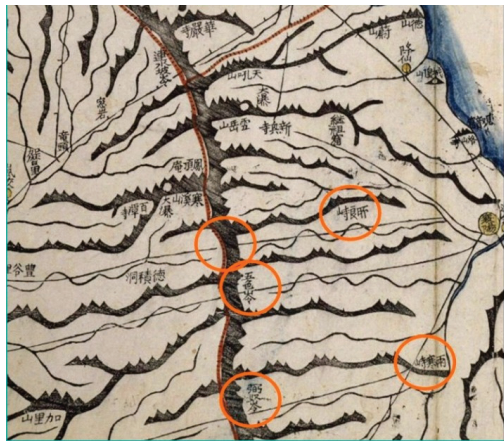
라고 한 기록을 참고한다면 이해가 쉽다. 다시 요약 정리하자면, 소동라령 또는 한계령은 새로 등장한 ⑥노선을 이용하면서부터는

강선(양양)⇒오색령⇒기린⇒원대⇒건이원⇒천감(홍천)

↓가리산 ⇒ 덕적⇒인제

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한계령이란 지명이 노선에서 빠진 것임을 짐작케 한다.

한계령 옛길은 비록 높고 험하여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영동(嶺東)과 최단거리임을 감안 할 때, 폐지(廢止)된 이후에도 사대부를 제외한 일반 평민들에 의하여 상(商)거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1950년대 초만 해도 이곳을 넘는 이들이 한계령(寒溪嶺)을 넘어 갔다 왔다고들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림 8. 대동여지도

#### 4. 하천(河川)의 발원지(發源地)에 따른 접근

물이란 제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따라 흐른다. 따라서 제일 높은 곳이 발원지(發源地)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수원(水源, source)지는 하천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백두대간은 동서의 경계를 이루는 제일 높은 령(嶺)이다. 그러니까 동서로 흘러내리는 하천의 발원지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인제(麟蹄)의 미륵천(彌勒川)과 양양(襄陽)의 남대천(南大川)의 발원지는 바로 이 백두대간이 될 수밖에 없다.

옛 문헌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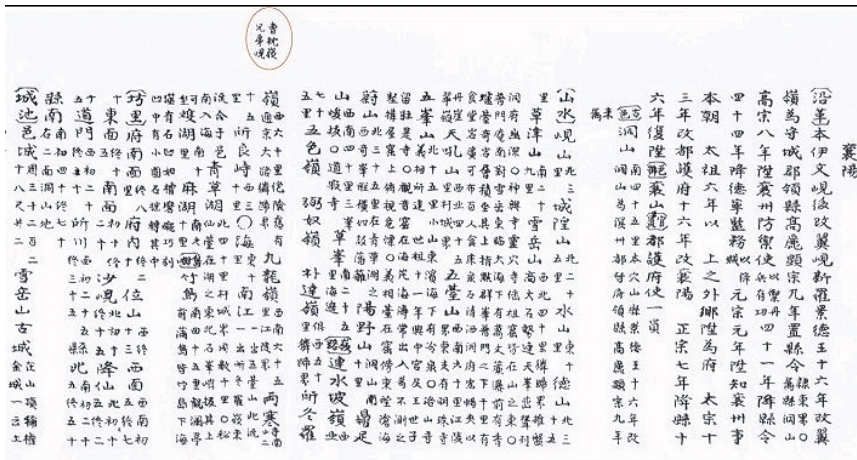
① 미륵천은 그 원류가 넷이 있으니 하나는 소동라령에서 나오고, 하나는 소파령에서 나오며, 하나는 서화현에서 나오고, 하나는 춘천부 기린현에서 나온다. 남대천은 강릉부 오대산에서 나오며 소동라령 물과 합치고 부 남쪽을 지나 바다에 들어간다.(신증동국여지승람)

② 남대천은 오대산에서 나온 물이 소동라령에서 나온 물과 합쳐져 양양부를 지나 바다로 간다.(여지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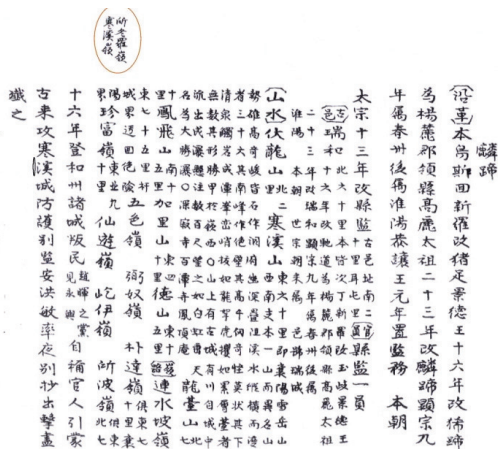
③ 추동천은 인제에서 동남으로 30리에 있으며, 오색령에서 발원, 서쪽으로 흐르다 기린천으로 유입된다. 남강의 한 원류는 오대산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동라령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둘이 만나 바다로 들어간다.(대동지지)

라고 적고 있다. 앞의 예문을 본다면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양양의 남대천과 한계천(寒溪川)의 발원지이고, 오색령(五色嶺)은 미륵천(彌勒川)·소양

강)의 한 지류인 기린천(麒麟川)으로 이어지는 추동천(楸洞川)의 발원지가 된다. 따라서 지금의 한계령(寒溪嶺)이 있는 곳이 오색령(五色嶺)이 분명하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동지지(大東地志)』에 기록된 '추동천은 인제에서 동남쪽으로 30리에 있으며, 오색령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다 기린천으로 유입된다.'라는 내용이다. 오색령이 지금의 한계령(소동라령)과 동일 지명이라면 도저히 추동천(楸東川)의 발원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계령이 오색령이라고 할 경우 그사이에 가리산(加里山)이 가로막고 있어 추동천으로 흘러



● 그림 9. 대동지지(양양부)



● 그림 10. 대동지지(인제현)

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동지지』〈인제현〉 편을 보면 소동라령과 한계령을 동일 지명으로 병기(併記) 하고, 오색령은 별도로 소개되어 있으며, 『대동지지』〈양양부〉 편에도 오색령은 필노령(弼奴嶺)·박달령(朴達嶺)과 더불어 서쪽 50리에 있고, 소동라령은 서쪽 60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앞에서 보여주었듯이 〈그림 5〉의 〈동역도(東域圖)〉를 살펴보면 오색령으로 표기된 부분이 추동천(楸洞川)의 발원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표기된 오색령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한계산과 맞닿는 곳은 소동라령(현재의 한계령)이라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안석경(安錫敬)의 『삽교집(霄橋集)』〈東行記〉<sup>31)</sup>에

백담사(百潭寺)를 거쳐서 **한계령(寒溪嶺)**을 넘으면 대승폭포가 보이고, **오색령(五色嶺)**을 넘으면 **기린(麒麟)**으로 이어지는데 **깊고 긴 골짜기다**. 한계산(寒溪山) 외에 산도 가는 길에 구경할 만하다. 기린(麒麟)의 수살막이는 합강정(合江亭)이다. (百潭寺經踰寒溪看大乘瀑踰五色嶺尋麒麟長谷以悉寒溪外山之賞仍道猗獐水口抵合江亭)

이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도 한계령과 오색령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오색령의 위치는 한계령 남쪽임을 알 수 있으며, 『대동지지(大東地志)』에 기록된 ‘추동천은 인제에서 동남쪽으로 30리에 있으며, 오색령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다 기린천으로 유입된다.’라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31) 1761년에 씀. 자료제공자 홍하일 님.

## V. <조선시대 양양부(襄陽府) 소동라령(所冬羅嶺)의 고찰(考察)>논문 검토

<오색령(五色嶺) 지명에 관한 고찰>과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이란 논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오색령(五色嶺) 지명에 관한 고찰>에 대해서는 소동라령과 오색령이 한 산이라고 주장 하였는데,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이란 논문에서는 이를 또 별개의 산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부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 또는 보완 하였기에, 전자(前者)는 생략하고,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이란 논문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 논문의 주 요지(要旨)는

- ① 소동라령이 현재의 한계령이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 ② 역사 기록에 보면 분명히 오색령, 소동라령, 옛 한계령은 모두 다른 령이었다.
- ③ 지도는 한눈에 볼 수 있어 글로 기록된 문헌에 비해 영의 좌우관계를 그르칠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 ④ 모든 고지도에서 소동라령은 오색령 남쪽 위치에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수파(박달령)와 구룡령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 ⑤ 현재 북암령으로 불리는 곳이 소동라령이다.

⑥ 지금의 한계령은 조선총독부에서 왜곡시킨 지명이다.

⑦ 옛 한계령은 대승령에서 귀때기청봉, 오색령으로 연결되는 코스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⑧ 지금의 한계령 옛 지명은 소솔령이었다.

대략 나열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를 더 집약하면, 오색령과 옛 한계령. 소동라령은 서로 다른 영이며, 지금의 한계령은 옛 소솔령이고, 오색령인데 일제시대에 왜곡된 지명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예시한 <그림1>해동지도(海東地圖)와 <그림2>동여도(東輿圖)를 보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뺀은 가지를 한계산(寒溪山)이라 표기하고, <해동지도>에는 그 바로 옆에 소동라령(所冬羅嶺)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오색령은(五色嶺) 한계산 북쪽 상단에 표기 하였으며, <동여도>에는 소동라령 위치에 분명히 한계령(寒溪嶺)이라 표기 하고, 그 남쪽 하단에 오색령(五色嶺)을 표기하고 있음을 볼 때, **소동라령과 한계령은 한 지명임을 유추할 수 있고, 오색령이 때에 따라 북으로 남으로 오고 가며 달리 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모든 고지도에서 소동라령은 오색령 남쪽 위치에 표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가? 이것을 볼 때 분명히 지명표기상의 오류임을 알 수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는 억지 주장이 아니며,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8년도에 발간한 『한국 지명 유래집(韓國地名由來集)』도 왜곡된 것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런 까닭으로 ①에서 소동라령이 현재의 한계령이 아니라는 논리나, ②에서 소동라령과 옛 한계령이 아니라는 논리는 맞지 않고, ④에서 처럼 모든 고지도에서 소동라령은 오색령 남쪽 위치에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수파(박달령)와 구룡령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다음은 ③과 같이 '지도는 한눈에 볼 수 있어 글로 기록된 문헌에 비해 영의 좌우관계를 그려칠 우려가 적다'고 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지도만 비교하여 보아도 오색령이라는 지명이 지금의 한계령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오가며 표기되어 있음을 간단히 입증 할 수 있음에도 지도를 피하고 문헌들의 기록을 빌어 설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색령의 표기가 크게 잘못된 지도를 하나만 더 들여보자면 좌해지도(左海地圖)를 들 수 있다.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을 쓴 이기용씨는 한계령(寒溪嶺)이란 지명이 표기된 지도는 〈동여도(東輿圖)〉가 유일하다며 예시하고, 오색령과 한계령은 다른 도로로 함께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오색령보다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승령에서 귀떼기청봉 오색령(현 한계령)으로 연결되는 코스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문헌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계령(寒溪嶺)이란 지명이 한계산(寒溪山) 줄기에 있으며, 길이 험하여 주로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고지도에는 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면서 옛 한계령은 대승령에서 귀떼기청봉 오색령(현 한계령)으로 연결되는 코스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예시한 좌해지도(左



●그림 11. 좌해지도

(별표): 지명 표기상의 오류

지도명		비 고(한계령을 중심으로)
1)여지도(강원도)〈古4709-37〉	남방	설악산⇒한계산⇒오색령
2)여지도(관동도)〈古4709-68〉	남방	한계산⇒오색령⇒구룡령
3)여지도(양양부)〈古4709-68〉	남방	( )⇒오색령⇒박달령⇒조침령⇒구룡령
4)여지도(인제현)〈古4709-68〉		설악산⇒한계산⇒필레 *오색령은 동남가지에 표기
5)팔도지도(강원도)〈古4709-23〉	북방	설악산⇒오색령⇒연수과령⇒한계산⇒소동라령⇒구룡령
6)팔도지도(강원도)〈古4709-48〉	북방	설악산⇒오색령⇒한계산
7)팔도지도(강원도)〈奎10331〉	북방	설악산⇒오색령⇒연수과령, 한계산⇒소동라령⇒구룡령
8)팔도지도(강원도)〈古4709-14〉	북방	설악산⇒오색령⇒연수과⇒한계산⇒구룡령
9)조선팔도지도(강원도, 황해도 일부)〈古屏91251.1773〉	북방	진부령⇒홀리령⇒소과령⇒오색령⇒형제현⇒한계산⇒조침령⇒박달령⇒소동라령 ⇒구룡령
10)조선팔도지도(강원도)〈奎12419〉	북방	설악산⇒오색령⇒한계산⇒연수과령⇒구룡령
11)조선팔도지도(강원도)〈古4709-54〉	남방	설악산⇒설악산(한계산)⇒오색령⇒필예령
12)조선지도(인제현)〈규16030〉	북방	설악산⇒오색령⇒한계산⇒필예령⇒박달령 *오색령을 영서에 표기
13)좌해지도(강원도)〈규12229〉	북방	설악산⇒오색령⇒연수과⇒한계산⇒소동라령⇒구룡령
14)좌해분도(강원도)〈古4709-99〉	북방	설악산⇒오색령⇒한계산⇒소동라령
15)팔도분도(동관)〈古915.1-P173〉	북방	설악산⇒오색령⇒한계산⇒연수과령⇒조침령
16)해동지도(강원도)	남방	설악산⇒한계산⇒오색령
17)해동지도(인제현)	남방	설악산⇒오색령⇒필예령⇒소동라령
18)해동지도(강원도)〈古4709-61〉	북방	설악산⇒오색령⇒연수과⇒한계산⇒소동라령⇒구룡령
19)지승(인제현)〈奎15423〉	중	진부령⇒홀리령⇒석과령⇒미시령⇒한계, 오색, 박달령⇒조침령⇒
20)지도(강원도)〈古4709-92〉	남방	한계⇒설악산⇒오색령
21)관동지도(강원도)〈古4709-35〉	남방	설악산⇒한계산⇒오색령
22)대동방여도	남방	한계산⇒오색령⇒필예령
23)비변사인방안지도(양양부)	남방	설악산⇒오색령⇒조침령
24)동역도(강원도)〈古4709-27〉	남방	설악산⇒한계산⇒오색령⇒연수과령⇒조침령⇒
25)동여도(강원도)	남방	설악산⇒한계산, 한계령⇒ 오색령⇒필예령
26)대동여지도(전국도)	남방	설악산⇒한계산⇒오색령⇒필예령
27)청구요람(전국도)	북방	설악산⇒오색령⇒한계산⇒필예령⇒조침령⇒박달령⇒소동라령
28)청구도(전국도)	남방	설악산⇒한계산, 오색령⇒필예령⇒박달산⇒소동라령
29)1872지방도(양양부)	중	설악산⇒오색령⇒필예령 *읍에서 50리 약수에서 10리

海地圖)를 보면 오색령(五色嶺)은 연수과령 보다 더 북쪽에 표기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노선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어찌 설명 하겠는가? 또 이 지도에도 한계산(寒溪山)이 접해 있는 백두대간 옆에 소동라령(所冬羅嶺)이라 표기하고 있음은 어찌 이해해야 하는가? 더욱이나 1751년에 간행된 『택리지(擇里志)』에는 북에서부터 남으로

‘연수령 → 오색령 → 설악산. 한계산 → 오대산’

순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지도를 살펴보면 <별표>와 같이 오색령은 한계산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또는 동남 가지로 이동하면서 표기되어 있음을 볼 때, 옛 한계령과 지금의 한계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오색령의 표기가 잘못되었음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고 본다.

예시한 29종의 지도 중에서 14개의 지도가 오색령(五色嶺)을 한계산(寒溪山)으로부터 남방(南方)에 표기하고, 12개 지도에서 한계산 북쪽에 표기하고 있으며, 3개 지도가 중앙 또는 동남(東南) 가지에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표기상의 착오로 어느 지도를 참고하였느냐에 따라 지명도 달리 표기된 것이다. 따라서 4),5),6),7),8)의 주장도 옳지 않다.

다음은 현재의 북암령(北庵嶺)이 소동라령(所冬羅嶺)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이란 논문에는 이렇게 쓰고 있다.

양양에서 오색으로 향하노라면 중간쯤 지점에 반드시 거쳐야하는 고개가 있다. 일명 발딱고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한령(寒嶺)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보이는 마을이 송어리와 송천리이다. 이는 일본인들이 만든 지명으로 지금도 옛 지명인 소어(所於), 소래(所川)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두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

이 북암리(北峯, 北庵里)로 인제 진동리로 연결되는 대로의 옛 고갯길이 있다. 지금은 북암령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이 고개의 옛 지명이 소어령, 소동라령이었을 것이다. 이는 박달령이 일본식 한자인 단목령(檀木嶺)으로 바뀌었듯이 북암령이라는 지명도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북애미를 일본식 한자인 북암리로 고친 후, 영의 이름도 일본식 지명인 북암령으로 고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자. 인용한 내용에서 북암령은 지금의 기린면 진동리로 연결되는 대로의 옛길이라고 함은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이란 논문의 필자도 인정하였다. 그런데 기린이 현재는 인제군 관할이나, 1906년까지는 춘천(春川)의 관할이었는데, 인제(麟蹄) 관할인 소동라령(所冬羅嶺)이 어떻게 하여 춘천(春川) 관할 땅에 가 있어야 하는가? 그 뿐인가? 여러 가지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소동라령은 인제와 양양의 경계를 이룬다고 하였는데, 인제는 제외되고 춘천과 경계하는 령을 소동라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논리는 <해동지도(海東地圖)>에서 보듯이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한계산(寒溪山) 남단에 표기되었을 경우에만 유추(類推)가 가능한데, 한계산이 백두대간에 접하는 부분을 소동라령(所冬羅嶺)이라고 표기 하였으니, 울산바위의 전설 같이 한계산(寒溪山)을 북암리(北庵里)까지 끌어다 놓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다. 지금의 한계산은 예전의 한계산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의연하게 터 잡고 있으니, 이런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또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⑤의 '현재의 북암령이 소동라령'이라는 주장은 억지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한계령은 조선총독부에서 왜곡시킨 지명이다.'라는 주장도 그렇다.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이란 논문에서

인제 진동리로 연결되는 대로의 옛 고갯길이 있다. 지금은 북암령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이 고개의 옛 지명이 소어령, 소동라령이었을 것이다. 이는 박달령이 일본식 한자인 단목령(檀木嶺)으로 바뀌었듯이 북암령이라는 지명도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북애미를 일본식 한자인 북암리로 고친 후, 영의 이름도 일본식 지명인 북암령으로 고친 것으로 보인다.

북암리가 ‘북애미’의 일본식 지명이라고 예시한 것도 모순이다. ‘북암리’라는 지명이 ‘북암’ ‘북암이’ ‘북아미’ 혹은 ‘북애미’로 변성된 이름임으로 일본식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약한 것이 아닌가 싶다. 더욱이나 소동라령(所冬羅嶺)이란 지명은 왕조시대(王朝時代)부터 전해오는 지명이고, 한계령(寒溪嶺) 또한 1915년에 발행된 <조선총독부지도>보다 54년이 빠른 1861년에 제작된 <동여도(東輿圖)>에 한계령(寒溪嶺)이란 지명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오색령’이 ‘한계령’으로 잘못 표기 되었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계령의 옛 지명은 소솔령이었고, 소솔령이 뒤에 오색령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이란 논문이

문헌에 오색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찾을 수 있다. 선조실록 권72(宣祖實錄卷七十二) 1596년 2월 1일(戊戌)에 비변사(備邊司)가 아뢰기를 “적병이 경상도의 영해(寧海) 연해를 따라 북상하게 되면, 평해와 울진이 가장 먼저 적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곳을 만약 지키지 못하여 적병이 깊숙이 영동(嶺東)으로 침입하면, 추지령(楸池嶺)·미수과(彌水坡)·오색령(五色

嶺)·백봉령(白鳳嶺) 등의 곳은 모두 영(嶺)을 넘는 길이 될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토록 이용이 많았던 소솔령(所率嶺)이라는 고개명은 이때부터 모든 기록과 지도에서 사라지고 오색령(五色嶺)이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이는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복잡한 고개명칭(소파령, 소솔령, 소어령, 소동라령 등)의 혼돈으로부터 오색역을 지나는 영로라는 지명을 통해 고개의 위치를 쉽게 기억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했다. 소솔령이란 지명이 처음 등장하는 기록을 보면 1485년에 남효온(南孝溫)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다. 소동라령을 통하는 영로를 1493년에 폐하였으니 그 보다 8년 전의 일이라 이는 대로라기보다는 산수를 즐기기 위하여 답사한 이동로를 따라 기록하였기 때문에 대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의 이동로를 살펴보면

오색 → 소솔령 → 면암 → 신원(한계) → 부림(원통)

으로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한 소솔령은 현재 지도에 삼거리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동서의 경계를 이루고, 면암은 현재 인제읍 귀둔 지역에 속한 지명으로 순 우리말 이름으로 ‘너럭바위’라고 부른다. 소솔령이 오색령으로 바뀌었다면 오색령은 지금의 한계령이 아니라 삼거리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림12> 동여도에 표기된 이동로를 살펴보자. ❶로선이 옛 대로였던 소동라령이다. 이 역로는 오색 → 소동라령(한계령) → 신원 → 부림역(원통역)으로 통하는 대로인데, 길이 너무 험준하다는 이유로 성종(成宗) 24년(1493)에 폐지되었다. 한계령이란 이름이 고지도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



●그림 12. 동여도(이동로)

는 모든 지도들이 뒤에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②로선은 ‘양양 → 원암 → 미시령 → 갈역.(가역원) → 남교역 → 부림(원동역)’으로 이어지는 관방로(關防路)로 소동라령을 통하던 길을 폐지한 이후의 노선이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간성군 편에 ‘성종 24년에 양양부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고 좁다 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라 기록하고 있고, 또 택당(澤堂) 이식(李植:1584-1647)이 저술한 『수성지(水城志)』에는 ‘계축(癸丑)년에 양양부에서 소라령(所羅嶺)이 좁고 험한 까닭에 다시 이 길을 열어 양양, 간성 양읍의 관로(官路)로 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수성지』에 ‘원암역은 군 남서쪽 60리에 있는데 미시과령(彌矢坡嶺) 입구에 처음 개설했다가, 양양의 오색역으로 옮겼다가 다시 상운역(祥雲驛)으로 옮겼다.’고 하였다. 성종 24년에 미시령으로 옮긴 역로를 훗날 소동라령으로 다시 옮겼다가 뒤에는 해안을 따라 강릉으로 통하는 상운역으로 옮겨 갔다는 얘기가. ③로선은 상운역으로 옮기기 바로 직전에 이용하던 역로다. 보는 바와 같이 이 노선에 오색령(五色嶺)이 표기되어 있다. 필자가 지명표기의 오류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동지지(大東地志)』의 기록을 보면

추동천은 인제에서 동남으로 30리에 있으며, 오색령에서 발원, 서쪽으로 흐르다 기린천으로 유입된다. 남강의 한 원류는 오대산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동라령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둘이 만나 바다로 들어간다.

라고 했다. ‘기린천으로 유입하는 추동천(楸洞川)은 인제에서 동남으로 30리에 있으며, 오색령에서 발원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오색령(五色嶺)이 곧 과거의 소솔령(所率嶺)이고 오색령(五色嶺)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삼거리 즉 옛 소솔령 혹은 오색령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물이 ‘원진개’로 추동천의 발원지(發源地)가 되기 때문이며, 바꾸어서 이곳이 소동라령(所冬羅嶺)이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동라령이 북암령(北庵嶺)이 될 수는 없다. 북암령은 지금 삼거리라는 곳에서도 동남(東南)향으로 망대암산(望大岩山)을 거쳐 점봉산(點鳳山)과 단목령(檀木嶺)을 차례로 지나야 있기 때문이다.

④.⑤로선은 오색역(五色驛)을 상운역(祥雲驛)으로 옮긴 이후에 사용되던 길로 대로(大路)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채로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노선으로 지금의 한계령(寒溪嶺)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자주 이용되었다.

택당(澤堂) 이식(李植)이 간성현감(杆城縣監)으로 재임한 기간은 1631-1633년으로 1633년에 저술한 『수성지(水城志)』에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고 좁다 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 라고 하는 노선이 바로 오색령으로 통하는 ③노선이다. 한계령(寒溪嶺)이란 지명이 지도에서 사라지고 오색령(五色嶺)이 지도에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③노선은 오색약수터에서 주전골과 십이폭포를 거쳐 삼거리에 이르는데, 이 삼거리를 소설가 이순원(李舜源)은 ‘은비령’이라 명명하고, 이를 소재로 『은비령(隱秘嶺)』이란 소설을 쓰기도 하였다. 이순원은 ‘은비령’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 은비령은 한계령 꼭대기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다가 1km쯤에서 만나는 셋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길을 틀어 다시 한계령의 다른 허리 중간을 되넘는 곳이다. 처음부터 그런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 고갯길도 사람들은 한계령이라고 불렀다.**

그 셋길을 ‘신비롭게 감춰진 땅’이라는 뜻에서 은비령(隱秘嶺)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이 소설을 쓴 나였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은비령’을 검색하면 내 소설에 대한 얘기보다 지명조차 은비령으로 바뀐 그곳의 여러 산장과 타운에 대한 얘기가 더 많다. 길도 이제 ‘은비령 길’이 되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인제읍 귀둔리에 거주하며 농협지소장과 마을리장 직을 20여년 이상 거친 박봉환(朴鳳煥:80)씨는 옛 오색령이라는 곳과 이동로를 직접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림 13〉의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 즉 관터에서 오색약수를 거쳐 주전골로 해서 삼거리에 이르게 되는데, 양양에서는 이곳을 한계령(寒溪嶺)

●그림 13. 박봉환씨의 자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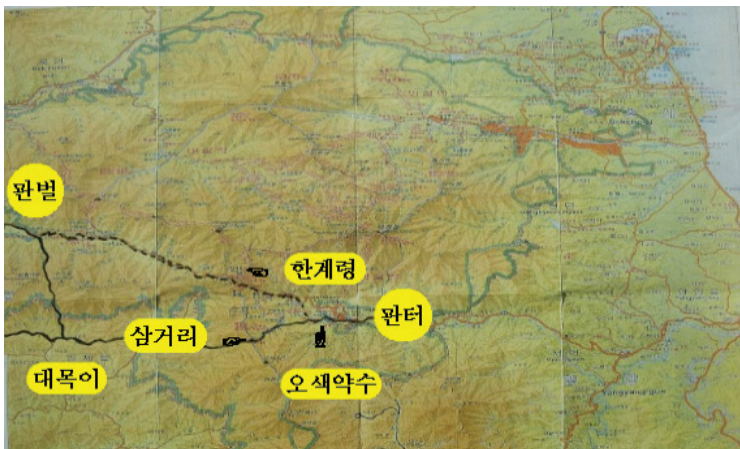


이라 하고, 인제에서는 이곳을 ‘오색이영’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원통으로 가려면 ‘큰 원진개’로 해서 ‘대목이’를 거치고 ‘안가리산’을 거쳐 한계로 다니기도 하고, 백두대간을 따라 북으로 향하다가 지금의 한계령쯤에서 한계리로 다니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림 14〉는 설악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國立公園管理事務所)에서 제작한 설악산 관광용 지도에 박봉환(朴鳳煥)씨의 자필 그림과 설명을 참고하여 그린 이동로인데, 선(線)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주 이동로이고 점선(點線)으로 된 부분을 이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점선으로 된 부분은, 옛 소동라령(所冬羅嶺)으로 통하던 옛길이고, 선(線)으로 된 이동로가 뒤에 다시 개통한 노선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이제 오색령(五色嶺)의 위치가 어디고, 소동라령(所冬羅嶺)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주장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현재도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면,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꼭 집어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림 14. 설악산국립공원지도



## VI. 나서면서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에서는 소동라령과 한계령. 그리고 오색령이 각기 다른 지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은 다르다.

소동라령과 한계령은 동일한 지명이고, 지도 표기상으로는 소동라령과 오색령은 엄연히 다른 지명이라고 하겠으나, 이순원이 은비령(隱秘嶺)이라 명명(命名)한 곳을 한계령(寒溪嶺)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계령 또한 양양에서 오색령(五色嶺)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100% 틀리지는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전해오는 각종 문헌에서도 혼용(混用)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박봉환씨가 전해주는 이야기처럼, 지금의 삼거리를 예전에는 오색령(五色嶺)이라고 불렀는데, 양양사람들은 이를 한계령(寒溪嶺)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또 1959년(단기 4292) 인제군 북면에서 작성 보고한 지명조사철(地名調査綴)에도

“영동과 통하는 오색이영의 낮은 영으로서 한계지역에 있다고 하여 한계령이라고 하나 오색이영이라고도 함”

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혼용(混用)하여 사용된 것이라 여겨진다. 무슨 무슨 령(嶺)이라고 하는 것이 딱히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선을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설악산과 한계산을 따로 표기하면서도 크게 보면 한산이라고 했듯이, 오색리를 둘러싸고 있는 산세를 보아 양양에서는 이 모두를 아울러 오색령이라 볼 수도 있고, 인제에서는 백두대간을 경계로 북면 용대리와. 남교리. 한계리가 접해 있고, 인제읍 덕산리. 가리산리. 귀둔리가 접해 있으며, 옛 춘천부에 속해 있던 기린면 진동리와 방동리가 인접해 있음으로 읍면단위로 세분하여 지명을 붙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다.

**따라서 소동라령. 한계령. 오색령이 각기 다른 산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 할 수 없으며, 널리 그리고 크게 보는 차원에서 모두 동일한 지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의 한계령이 오색령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비록 어재와 오늘의 일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왕조시대(王朝時代)부터 양양과 인제군에 관한 기록들이 서로 상이하게 전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시적(巨視的)인 차원에서 동일한 지명이라고 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쉽게 판단할 일도 못되고, 지명이란 것이 시의(時議)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개명되는 일도 허다하기에, 필자는 1994년 양양군에서 지명을 개명하자고 제의(提議)할 때부터, 지명을 고치려면 과거의 이름 즉 소동라령(所冬羅嶺) 또는 ‘바드랏재’로 하던가 아니면 현재의 지명(地名)에 따라야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라 자제(自制)하자는 의견을 수 없이 제기해 왔다. 정말 이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기정사실화 된 지명을 가지고 소모적인 언쟁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논지의 끝을 맺고자 한다.

# 參考資料





## 〈參考資料〉

### 문헌(文獻)

- 『여지도서(輿地圖書)』 1757-1765년  
『대동지지(大東地志)』 1864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문헌비고(文獻備考)』 1908  
『양양군읍지(襄陽郡邑誌)』 1899 .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 1911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1736-1806  
『택리지(擇里志)』 1751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산경표(山經表)』 1913년  
『만기요람(萬機要覽)』 1908년 경  
『관동읍지(關東邑誌)』 1871년  
『수성지(水城志)』 1633

### 사설문집(僿設文集)

- 정범조(丁範祖) 『해좌집(海左集)』 〈설악기(雪嶽記)〉  
구사맹(具思孟) 『팔곡집(八谷集)』 시 〈한계산(寒溪山)〉  
성해응(成海應) 『연경재집(研經齋集)』 〈기관동산수(記關東山水)〉  
허목(許穆) 『미수기언(眉叟記言)』 〈오대산기(五臺山記)〉, 〈동유박물(東遊  
搏物)〉, 〈삼척기행(三陟紀行)〉

이만부(李萬敷) 『식산집(息山集)』 〈지행록(地行錄)〉  
정약용(丁若鏞)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산수심원기(山水深遠記)〉  
금원(錦園)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  
김몽화(金夢華) 『칠암문집(七巖文集)』 〈유설악록(遊雪嶽錄)〉  
김수증(金壽增) 〈유곡연기(遊曲淵記)〉  
안석경(安錫敬) 『삼교집(雲橋集)』 〈동행기(東行記)〉

## 지도(地圖)

대한전도(大韓全圖) 1900년경  
해동지도(海東地圖) 1750년대 초기  
동여도(東輿圖) 1861  
조선지도(朝鮮地圖) 1756-1768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案地圖) 18세기 중엽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861  
설악산국립공원지도(雪嶽山國立公園地圖) 2005

## 논문(論文)

〈오색령(五色嶺) 지명에 관한 고찰〉 2011년. 이종우, 이규환  
〈조선시대 양양부(襄陽府) 소동라령(所冬羅嶺)의 고찰(考察)〉 2012. 이기용



자료 1-1 : 대동지지 (인제 산천조)

所  
處  
諸  
嶺

勢雄高奇城皆石依洞府幽深疊阻溪水縱橫而度  
 者二十大其南峰作絕壁其高千仞奇怪莫狀其下  
 清泉編岩成潭萃出峭拔如龍穿虎攫如層臺者  
 無數其形勝甲於嶺西口山上有古城有川自城中  
 流出成溪懸注數百尺墜之如白虹垂天龍臺山北  
 名爲大勝溪懸注數百尺墜之如白虹垂天龍臺山北  
 十鳳飛山南十里加里山東曰德山十里連水坡嶺  
 東七十五里杆五色嶺 硤奴嶺 朴達嶺 俱東七  
 城界迤邐絕度九仙遊嶺 屹伊嶺 所波嶺 俱東  
 陽珍富嶺十里 鷹峯嶺 十里 炭嶺 十里  
 十里杆槍曰嶺 鷹峯嶺 十里 炭嶺 十里  
 西城建伊嶺 西南十里 頭毛峴 揚口峯 波羅峙  
 十里 三几杜遷場 西十里 江流 缸遷 西十里 反昌遷  
 東十里 〇瑞和川 十里 蘇構川 南十里 楸洞  
 江流 〇瑞和川 十里 蘇構川 南十里 楸洞

자료 1-2 : 대동지지 (인제 산천조)

<p><b>驛站</b> 馬奴驛 西古三十里 瑞富林驛 今特園 通里東二十</p>	<p><b>倉庫</b> 北倉 十里 瑞和倉 十里</p>	<p><b>城池</b> 寒溪山 古城 東七十里 周六十二</p>	<p>屬米 終四 瑞和 北初四 終〇 伊布所 春川 世宗六年</p>	<p><b>坊里</b> 縣內面 終四 北初八 東面 終七 南面 終十</p>	<p><b>川通</b> 金寶洞 川 西南 終八 鳳臺 全寶加 奴離 里十</p>	<p><b>和百潭</b> 川 東四十里 入瑞和 川 寒溪 寒溪川 大跨 深西 阮入</p>	<p>俱瑞和 川 源 磊灘 十里 國通 川 之 灘 彌勒 川 下 俊瑞</p>	<p>鷹峯 嶺 南 阮 源 三 國 通 川 之 灘 彌勒 川 下 俊瑞</p>	<p>川 嶺 西南 三十里 源 出 五色 炭谷 川 嶺 南 阮 伊布 川 出</p>
---	-------------------------------	-----------------------------------	------------------------------------	---	---	--	---	---	--

자료 1-3 : 대동지지(양양 산천조)

襄陽

**沿革** 本伊文峴後改襄峴新羅景德王十六年改襄

嶺為守城郡領縣高麗顯宗九年置縣令錄東峴屬器岡山

高宗八年陞襄州防禦使以豐丹兵有切四十一年降縣令

四十四年降德寧監務以元宗元年陞知襄州事

本朝 太祖六年以上之外鄉陞為府 太宗十

三年改都護府十六年改襄陽 正宗七年降縣十

六年復陞襄山都護府使一員

**邑古** 洞山南四十五里本大山嶽景德王十六年改

屬來 洞山南四十五里本大山嶽景德王十六年改

襄陽

十

자료 1-4 : 대동지지(양양 산천조)

三七	山	蔚	空	宮	五	翠	丹	會	煙	晉	洞	里	山水
十五	西	山	猶	駐	峯	丹	臺	臺	門	府	府	草	峴
色	南	北	屋	是	山	臺	奇	奇	庵	出	出	津	山
嶺	四	三	窠	寺	北	嶺	巖	巖	南	深	深	山	山
函	十	十	上	口	里	天	廣	可	對	口	九	北	
奴	道	五	納	觀	十	吼	布	岳	雪	沖	里	三	
嶺	寂	里	現	音	五	山	百	坐	岳	興	二	城	
朴	寺	在	危	窟	里	里	人	其	上	寺	十	隍	
蓮	二	青	德	在	小	北	食	指	踏	靈	岳	山	
嶺	峯	草	義	海	山	界	床	照	大	穴	山	北	
嶺	南	薈	相	岸	東	五	泉	羣	海	寺	高	里	
嶺	二十	鏡	臺	海	嶺	臺	石	峯	下	迷	北	十	
嶺	五	之	在	濤	海	山	清	晉	有	祖	四	水	
嶺	里	陽	窟	常	下	界	酒	門	蕭	窟	十	山	
嶺	西	野	在	出	有	東	洞	下	文	皆	里	末	
嶺	街	山	窟	入	冷	南	府	十	蕭	在	十	德	
嶺	西	洞	窟	為	泉	六十	宏	里	蕭	山	里	山	
嶺	街	山	窟	不	口	里	楊	十	蕭	之	十	德	
嶺	街	南	窟	測	浚	江	十	里	蕭	東	三	山	
嶺	街	鼎	窟	之	山	陵	里	有	蕭	之	三	山	
嶺	街	足	窟	海	子	寺	以	有	蕭	東	三	山	
嶺	街	足	窟	海	子	寺	以	有	蕭	東	三	山	

자료 2-1 : 세종지리지(인제편)

江原道 揚口縣 麟蹄縣

二八〇

任內。睿宗元年始置監務。詳在屬縣一。方山。本高句麗三峴縣。新羅改三嶺爲楊  
 龍郡領縣。高麗改今名所一。亥安。方山古屬濊。屬海安屬春川。今上六年甲辰並來屬。四境。東距麟蹄二十五  
 里。西距狼川二十三里。南距春川二十五里。北距淮陽。任內文登縣五十里。戶二  
 百九十七。口六百四十一。方山戶二十。口五十。軍丁侍衛軍八十七。土姓二。柳張。  
 亡姓一金。續姓二。李梁。方山姓一米。亡姓三。崔俞田。厥土墳。風氣寒。墾田一千七  
 百九十七結。水田止一。水田百三結。土宜黍。稷。粟。豆。麥。桑。麻。梨。栗。漆。土質。蜂蜜。黃蠟。正鐵。芝草。五  
 倍子。真茸。石茸。鹿脯。狐皮。狸皮。虎皮。水獺皮。獐皮。狐尾。猪毛。熊毛。藥材。人參。茯苓。  
 當歸。前胡。秦芫。牧丹。皮。白芨。白膠。香。白花蛇。五味子。磁器所二。一在縣北乾川。一  
 在方山東長平。替中。品。陶器所一。在縣北貯乙里。品。下。品。驛二。水仁含春。  
 麟蹄縣監一人。本高句麗猪足縣。一云烏。品。四。新羅改稀蹄縣。爲楊龍郡領縣。高麗改  
 麟蹄縣。初屬春州。後屬淮陽。恭讓王元年己巳。始置監務。本朝因之。太宗十三年  
 癸巳。例稱縣監。屬縣一。瑞和。三。國。史。作來。本高句麗玉岐縣。新羅改馳道。爲楊龍郡領  
 縣。高麗改瑞禾。初爲春州任內。後屬淮陽。別號瑞城所一。伊布。古屬春川。今上六年甲辰並來屬。伏  
 龍山。在縣北。嶺人。以爲嶺山。四境。東距襄陽四十一里。西距楊口二十七里。南距洪川三十二

자료 2-2 : 세종지리지(양양편)

○紅, 黃, 本, 作, 粉

旌善郡

一. 洞山縣. 本高句麗穴山縣. 新羅改今名. 爲溟州領縣. 高麗顯宗戊午. 移屬翼嶺縣. 任內本朝因之. 名山雪嶽.在府西. 新羅時爲小記. 東海神祠堂.在府東. 春秋時. 香嚴致祭. 中祀. 四境. 東距海口七里. 南距江陵任內連谷五十里. 西距麟蹄三十六里. 北距杆城三十三里. 戶八百五十七. 口一千二百七十七. 洞山縣戶一百二十五. 口二百十八. 軍丁. 侍衛軍七十三. 紅軍一百九十五. 土姓二. 金. 李. 亡姓四. 孫. 朴. 河. 鄭. 續姓三. 張. 林. 尹. 洞山縣姓四. 朴. 金. 崔. 陳. 來姓一. 林. 亡姓一. 李. 厥土多墳. 俗業海錯. 崇習武藝. 墾田一千八百三十三結.水田五分之二. 土宜. 五穀. 桑. 麻. 菴. 柿. 梨. 栗. 楮. 漆. 土貢. 蜂蜜. 黃蠟. 松子. 胡桃. 五倍子. 芝草. 石蓴. 狐皮. 狸皮. 獐皮. 大口魚. 文魚. 沙魚. 年魚. 全鮑. 紅蛤. 水魚. 常藿. 席. 正鐵. 藥材. 人參. 五味子. 當歸. 茯苓. 安息香. 秦朮. 芎藭. 白花蛇. 熊膽. 防風. 白膠. 香白朮. 收丹皮. 土產. 簾. 石鐵. 產府西十里. 鐵掘山. 鹽盆二十二. 洞山縣. 鹽盆十八. 邑土城.周回一千八百八十步. 兩 驛四. 連倉. 祥雲. 降仙. 麟丘.在洞山. 周回一千八百八十步. 兩

山. 要害. 自本府西去. 麟蹄. 攪所等. 羅領三十六里. 烽火四處. 水山在府東.南准任內. 廣汀. 北准. 廣汀. 城竹島. 陽也. 山在洞山縣南. 南准連谷. 注乙. 廣汀. 在縣北. 南准. 陽也. 山. 南准. 德山. 北准. 廣汀. 文. 北准. 廣汀. 廣汀. 在縣北. 南准. 德山. 山.

旌善郡. 知郡事一人. 本高句麗仍買縣. 新羅改今名. 爲溟州領縣. 高麗顯宗戊午.

江原道 襄陽都護府 旌善郡

二六三

자료 3-1 : 조선지리지자료(양양)

江原道		襄陽郡		面	致
種別	地名	諺文	備		
山谷名	沙泥店谷	사기령골	縣南向兒佛里		
	寺谷	정골	上月川里		
	三層菴谷	삼층암골			
	鷹岩山	미바후산	西面四峴里		
	鼎足山	정족산	水洞		
	大口山	리구산	龍泉里		
	權金山	권감산	北坪里		
	雪嶽山	설악산	五色里		
	遙通谷	요통골	水洞		
	鯨谷	고리골	五色里		

자료 3-2 : 조선지리지자료(양양)

小 兩 岷 峙	望 襄 峙	泥 峙	龐 掛 峙	北 淹 峯	仙 乙 峙	兄 弟 峙	朴 達 峯	孺 如 峯	寒 溪 峯	三 發 峙	程 々 岨
자근양아치	망영고기	진고기	몽기리석	북범영	선을지	형제고기	박달영	필여영	한계영	삼발리지	형이고기
公湏田里	松川里		論化洞	北淹里	加羅度里				五色里	西面内岨里	



자료 3-3 : 조선지리지자료 (인제)

江原道		麟蹄郡北面	
種別地名	地名	漢文	備
江溪湖名	玉女川	옥녀계	寒溪里紫陽谷
	五色川	오색이대	
	鶯川江	연천강	魚陵里
	紅峰沼	홍봉소	嵐橋里
	長沼	진소	
	九雄沼	구웅소	龍頭里
	釜沼	가미소	
	杜武沼	두부소	
	楊谷溪	양곡계	
渡津名	西灘津	서탄정	元通里西湖

자료 3-4 : 조선지리지자료(인제)

南	高	麻	加	五	大	後	冠	子	獨	烽	青
山	時	田	里	色	勝	峴	峴	午	峴	火	峴
嶺	時	峴	嶺	嶺	嶺	峴	峴	峴	峴	時	峴
남	진	삼	가	오	위	뒤	관	즈	독	봉	청
산	지	막	리	식	승	고	고	오	고	황	고
니		치	산	이	성	기	기	고	기	고	기
지		고	성	녕							
	魚						寒				
	頤	魚	牛		紫	古	溪	桃			
	里	隱	足		陽	瓦	洞	李			
		洞	洞		谷	迫	谷	洞			

자료 4 : 선조실록

中丙

宣宗皇帝實錄卷之七十二

二月朔戊戌○上在貞陵洞行宮○王世子朝問 安○司憲府 啓  
 曰 監司雖委任而必交代後上來者以一日不可無道主也前忠清監  
 司朴和者以身病辭述不待交代而兵符印信付諸幕僚經自去任當  
 此遠遯之時不念國事當求安便至為非矣請 命罷職政院見朴弘  
 老上來狀 啓當即詰罪而後然無一辭殊失由納之義色承吉前  
 命推考 上從之○司諫院前 形色承吉罷職事 上答曰已為推  
 考不可至於罷職○備邊司 上五月三日 啓曰守國之要在於得  
 其形勢我 兩都城前後以長江為險而東面則大嶺橫截連亘人徒  
 知烏嶺竹嶺為關重而不知其江原道橫路一帶尤切於關防也監司  
 之任極為關重矣如 聖教若其措置方略則在當事者施設如何耳  
 難可一指授以大際言之則原州當竹嶺之路且與忠州為輔車之  
 勢而居國上流此地險象應等至最為緊急其次寧越與慶尚道崇  
 川隔一嶺而為邑嶺路有二條此亦當為防備賊兵由慶尚道寧海松  
 海以北則平海蔚珍當先受敵此處若失而賊兵深入於嶺東則椒池  
 橫瀾水坡五色嶺白鳳嶺等處皆為險隘之路不可不備也但本道物力  
 甚薄糧儲蕩均時月之間欲廣為備誠難為力善戰者固其勢而利

자료 5 : 연력실기술 16권 지리전고

以至遠近高低大小平險，亦謗高於紙地，而列二十四位於其中，乃於地上，量最近一處，而縮之爲小尺，不復量地，而仍以此尺量地上畫處，則當不煩步量，而山河天地城郭室廬，舉不逃於本處，而遠近高低，自然無絲髮爽差。<sup>青接</sup>

崑崙山一枝，行大鮮之南，東爲醫巫閼山，自此大斷爲遠東之野，渡野起爲白頭山，在女眞朝鮮之界，即山海經所謂不咸山也，北走一幹，挾二江爲寧古塔，南抽一幹爲朝鮮山脈之首，自山頂大池分水嶺，南走爲燕巖小峯，白山爲虛項嶺，爲寶多會山，爲緩項嶺，爲雪嶺，自此東抽爲長白山，一支北走歷鏡城富寧，挾豆滿江而東，止於慶興，自雪嶺南走爲豆里山，爲新頭嶺，西折南行爲黃土嶺天守嶺趙可嶺厚致嶺，北折而爲太白山，其間抽一支，西南行爲咸興府。

自太白西去爲白階山，南爲赴獸嶺，西南爲草黃嶺，爲雪寒嶺，西抽一脈，爲平安一道，正幹南行，爲上下劔山，爲五峰山，爲馬陰嶺，爲頭尾嶺，又東折南行爲巨毛嶺雙加嶺巨次里嶺，爲午屹，乃馬陰嶺老人峙，<sup>三嶺皆安邊永豐</sup>爲朴達峙，東折爲三方分水嶺，東起爲鐵嶺，東北爲黃龍山，南走爲扭串嶺，爲板池嶺，爲金剛山，爲檜田嶺珍富嶺屹里嶺石波嶺，爲雪岳寒溪山，爲五色嶺連水波，爲五臺山，爲大關嶺，爲頭陀山，爲百復嶺，西折而爲太白山，西南爲牛峙馬兒嶺，爲小白山，爲竹嶺，起爲月岳，爲主屹山，爲鳥嶺，爲襄陽山清華山俗離山火嶺秋風嶺，爲茨嶽舞巖嶺，大德山德裕山，爲六十峙本月峙八良峙，爲智異山。

婢三口今廢獐邱驛自官門南距五十里大馬二匹卜馬三匹吏七十九名奴九十九名婢三十名今廢

關阮五色嶺在郡西五十里卽雪岳南枝接獐蹄界

爾如嶺在郡西四十里卽五色嶺南枝接春川

界阻枕嶺在郡西四十里卽旸冬羅嶺南枝接

麒麟縣界九龍嶺在郡西七十里卽阻枕南枝

接江陵界无弟峴在郡西四十里兩峴對峙相

似故名兩寒峙在郡西二十里向九龍嶺路

燧燧水山燧燧在郡東十里南應草津山德山燧燧

互見上 在郡北二十五里北應杆城竹島南應水山草

자료 7 : 산경표

白頭大幹	
朱氷山 見上一四平康西六 十里	分二歧 南來
分枝嶺 猪目山 北來	分三歧 山
城山 伊川治 在南二里	杆城西三 十里
磨香羅 屹里嶺	杆城治 東來
彌時坡 雪岳 嶺	麟蹄北五 十里
黃龍山 北來 安邊東六 十里	杆城山 麟蹄東十 里
飛雲山 安邊東二 十里	南八十 里
白雲山 安邊東二 十里	俗稱麗水 閣西北五 十里
鶴城山 安邊治在 西五里	峽谷 十里
侍中臺 東來	峽谷西二 南一里
五色嶺 連水嶺 曹枕嶺	峽谷西 十里
九龍嶺 南來	峽谷 十里
姑峯 東來	峽谷 十里
叢石 通川北二 十里	峽谷 十里
靈穴沙 峽谷 十里	峽谷 十里
峴山 襄陽治在 南三里	峽谷 十里

山經表 白頭大幹

一七

(嶺藏恩藏本)

大夫處杜門息交獨善其身則雖爲農爲丁爲賈樂在其中矣如此則人心之好不好又非可論矣

山水

何以論山水白頭山在女真朝鮮之界爲一國華蓋上有大澤周迴八十里西流爲鴨綠江東流爲豆滿江北流爲混同江豆滿鴨綠之內卽我國也自白頭至咸興山脉中行東枝行於豆滿之南西枝行於鴨綠之南自咸興山脊偏薄東海西枝長亘七八百里東枝未滿百里大幹則不斷峽橫亘南下數千里至慶尙太白山通爲一派嶺而咸鏡江原之交爲鐵嶺是爲通北大路其下爲湫池嶺爲金剛山爲延壽嶺爲五色嶺爲雪岳寒溪山爲五臺山爲大崗嶺爲白鳳嶺仍作太白山焉皆亂山深峽危峯疊嶂耳謂之嶺者仍嶺脊稍低平處開路通嶺東者其餘皆以名山稱者也平安一道無論清北清南皆自咸興西北枝結作黃海一道及開城府從高原文川間西枝結作鐵原漢陽自安邊鐵嶺發脉結作江原一道皆自嶺西抽者而西局於龍津爲一國最短之脉過此而無山自太白山嶺脊分左右行左枝遶東海而下右枝自小白南下者不比太白以上雖萬山中脊脉連斷數斷大嶺四小嶺七小白下竹嶺爲大嶺嶺下天柱火院爲小嶺主屹下鳥嶺爲大嶺嶺下陽山栗峙爲小嶺俗離下火嶺秋風嶺黃岳南舞豐嶺爲小嶺德裕南六十峙八良峙爲大嶺過此而爲智異矣皆南北通行之路而所謂小嶺皆平地過峽也就中俗離德裕二山分孽尤多俗離南下外倒

寺宿乙巳。北出之。循飛仙洞後嶺而下。嶺懸急。皆銜石多窾少。失足則輒僵仆。而南指馬脊諸峰。歷歷雲際。不知何以能致我於其上也。宿神興丙午。還雪嶺。據麟襄二州。而麟得四之三。獅子峰之東爲晴峰。而獅子差高。而所得止東海。西南北之爲雪嶺。無加得於獅子。故不果登。獅子之南爲雙瀑水簾。西爲五歲。又其西爲永矢。又其西爲百潭。遠海涵其北。楓嶽書出若螺髻。寒溪瀑在西南。自新興至五歲四十里。五歲至獅子四十里。獅子至永矢四十里。永矢至寒溪三十里。寒溪至百潭三十里。百潭至神興四十里。理



次杆城小樓韻

悠々倦行後。忽々堪蓬暮。久客僦白鬚。沉吟耿丹臍。螢  
綴幽草花。月碎高葉露。微茫海棠岸。隱約瀛洲路。曲池  
瀉鳴淙。遙村塞宿霧。緬懷入桃源。翻思攀桂樹。何以慰  
愁絕。尊中有清醑。

寒溪山

雅性愛泉石。一癖老未化。寒溪聞未窺。每被游僧訛。忽  
驅使者車。東來天所借。雨雪阻賞心。輾轉淹館舍。朝起  
見晴曦。飄然仍促駕。入洞已忘憂。冷々碧沉瀾。南峯斷  
玄牝。詭恠真可訝。既抵古寺基。帝暮征鞍卸。酒飯解飢  
渴。談笑偷小暇。餘興頰白足。直上岩破罅。絕險固難狀。

石墮危堪怕。遂陟驚喜巔。坐無草可藉。扶杖立斯須。驛  
 目窮高下。崑崙幾疊巒。馳逐或迎迓。挺拔插蒼宮。未嘗  
 屈腰膝。瓌鄂整冠劍。彷彿聞叱吒。陰崖常凜々。白雪留  
 朱夏。森爽不可駐。漸降如吸蔗。千丈展蒼壁。倒掛飛泉  
 射。巨窟與朴淵。唐突論聲價。所恨久旱餘。未見長虹跨。  
 暮投上乘庵。林端絕啞々。金堂照素秋。玉燈炯長夜。上  
 粟有遺墟。兩髡曾所架。感世焉能久。掃盪不少假。嚴程  
 輟窮搜。來去寧免余。亦足慰平生。且向山靈謝。緬懷金  
 剛秀。茲山合居亞。五嶽尊岱宗。其次數嵩華。縱未敵純  
 玉。猶能侷偏霸。古寺。即寒溪寺。自蔡陽。可率嶺。抵嶺。歸  
 舊路。經由寺下。往未入。必投宿于寺。  
僧不堪也。接之苦。不肯居住。遂發空窟。今則地已大。  
 只有舊基。功絕宛然。曾是巨剎也。此山在嶺南。為寒溪。

寒溪

寒溪在雪嶽之西。由藍溪驛下流過古圓通。入寒溪寺。沙路松林似楓嶽之長安洞口。又出洞循溪而東。北望諸峯瓌奇。又前四五里。北有山川瀑。綠崖刻玉。流泉三字。其水窮處有故城址。平衍可棲。又有石門。其北曰支離谷。下數十里有三龍湫。甚奇壯。歷寒溪寺舊基。其北諸峯矗立森羅可畏。獅子峯甚危絕。由是可抵大乘菴。又其上爲上乘菴。下爲望瀑臺。瀑自峯巔落幾三百餘丈。又十里而至真木田。其後峯高處爛若玉雪。土岡三支自北蜿蜒而來。中支最露然。

乃曲百淵洞府也。淵深可二丈。廣袤數百步。清澈見底。色如綠玉。又過熊井洞。綠崖數百步。得一奧區可耕。其東數十里。可至五歲菴。過吉洞黃鵠瀨山。脚遮水口曰千春嶺。谷雲翁所命名。行可一里。有俗稱負轉巖抱轉巖。過此歷虛空橋而出洞口。潭上有四五峯。即三淵所名五老峯。

雪嶽

雪嶽極高峻。八月始雪。至夏始消。名雪嶽。其陰則襄陽。其陽則麟蹄。稟之勝稱食堂瀑。繼祖窟。麟之勝稱曲百潭。深源寺。三淵精舍。十二瀑。鳳頂菴。閉門菴。

青峯卽嶽之最高處。鳳頂乃避之。以其高摩穹蒼。遠見只縹緲而青。故指其絕頂而名曰青峯。圓而不峭。高而不削。亭亭植立若巨人然。過水簾洞登獅子項。歷殿若臺。琵琶臺。自此山頭。阨石城列。其最高處。飛鳥不能過。石面準平。有丹書迹。相傳永郎諸仙題石處。由此可抵峯上。然以其險絕也。三淵僅一二陟。陶菴亦一上云。山皎潔如雪。乃雪嶽之所稱也。自青峯走東南。連亘五色嶺者。是上雪嶽。自上嶽而南。將為寒溪。中間特起為仙掌諸峯者。是中雪嶽。又自此而來。幾及鳳頂。復崛起為高明諸峯之祖者。是下雪嶽。

蓋後世有好書者名之也。

五臺山記

寒溪東為雪嶽。雪嶽南為五臺山。高大深邃。山氣最積。若五謂之五臺。其最尤為象玉山。極高峻。其絕頂為毗臚峯。其東次峯為北臺。有甘露井。毗臚南地爐。地爐上為中臺。山深氣清。無鳥獸。釋子曉禮無像佛於此。此最極也。中臺少下有獅子庵。我太上神武王所建也。命參贊門下近作獅子庵記。有玉井。下流為玉溪。地臺

高城丹穴。三日浦。右龕丹書。迺城三大湖。烈山  
北明波海岸。皆鳴沙。躡則沙鳴。襄陽洛山寺觀  
音窟。昔我翼祖禱嗣於此云。雪嶽從襄陽海  
上西北行五十里。山極高峻。中秋始雪。至夏至  
雪消。其西寒溪南峯危壁。其極絕頂。其下深洲。  
山石神秀。歲醜不可名狀。懸瀑三百尺。川流盤

石可陟。又其上數里。方凡之水合流。  
自舍春驛行二十餘里。上開肖嶺。山深路險。踰  
嶺山中。多土。少石。山為童。山高地。可以燒菑。下  
地。可以芒種。有白屋。依山谷者五六。嶺間開地  
少。出日常晏。是日常曠。山谷。陰。登嶺。始望遠。  
出。平川。落日。嶺得開肖之名。以此耶。嶺下長峽。  
皆高巖。巨石。川谷盤迴。行三十里。石梁十二。出  
富林驛。彌首坡。寒溪之水。合流過之。寒溪之山。  
嶺傍大山。在楓。奇五臺間。山最深入。跡罕到。踰  
三峴三十里。至嵐校。此獐蹄東境之驛。川波遠。



蓋至陰之氣所種云。

雪嶽

雪嶽在襄州西北五十里。其西寒溪。其南五臺山。極高。仲秋始雪。仲夏雪消。故曰雪嶽。又其巖巒石色潔白如雪。故亦曰雪嶽。巖石間有穴。傍有靈穴寺。又有四擁寺。今廢。有古城曰權金。俗傳古有權金二家。避亂入其中云。

五臺

雪嶽南爲五臺。西距臨瀛府治百四十里。窮滄海邊。山多土少石。土岡隆然。欽然。積氣蔥蘢。東滿月。南靺

자료 16-1 : 정약용의 <산수십원기>

里爲白鷺洲。  
 茅津或稱牟津。或稱母津。在春川府北四十里。文獻書院署。運溪寺。先  
 生主覺。知溫堂李公廷蕃。左配。龜洲趙文簡公。右配。麟額之院也。  
 昭陽水自東來會。  
 昭陽水有二源。一出江陵府五臺山西北流。逕基麟古縣。一  
 所謂基麟之水也。一出驛驛縣茅溪山。南流逕瑞和古縣。所謂  
 瑞和之水也。○基麟水又折而北流。逕耳屯古縣。過樹洞之水。又至合  
 江亭之會。瑞和之水。○瑞和水又有二源。一曰寒溪山。一出  
 楸田嶺。楸田之水。南流至廣基村。過炭谷川。伊希川。逕臨川  
 驛。又過支安川。逕九尾村。爲縣。逕反昌。逕至國通  
 驛。○寒溪水與由百潭水。俱源出雪岳之茅溪  
 山。○寒溪之水。合爲一水。至合江亭。會于基麟之水。  
 二水合流。爲昭陽江。逕驛驛縣南。爲加勞津。逕彌勒院。

西流至鳳凰臺。過金寶洞之水。爲蛛液。又折而北流。至楊口。縣南界。爲草沙灘。爲南江。右過濟平之水。昭陽亭下。爲泮游潭。曲匠灘。突大潭。休留灘。向兀灘。至白鷺洲。入于油水。

寒溪山記云。寒溪山高。大奇峻。甲於嶺東。山上有城。有水自城中流出。即成瀑布。名大勝瀑。懸流數百丈。望之如白虹垂天。自圓通驛而東。左右皆大山。洞府深遠。溪水縱橫。虹涉者三十六曲。樹木如黃上。疎雲霧。旁無橫枝。松柏尤高。不見其巖。又其兩峯絕壁。高可千仞。奇怪莫狀。禽鳥不能飛度。行人疑遭壓壁。其下獨巖成潭。盤石可坐。又東數里。洞口甚狹。細徑緣崖。穴哈呀。蜂棚始拔。如龍拿虎攫。爲累層臺者無數。其水脈皆曲潭寒溪之源也。

자료 17-1: 황호의 <좌호망설산>

暮宿瘴欺輕霜翠林交碧樹行行次佐護凜凜見  
 寒露東南有一山山色何其素稍遠疑積沙漸近  
 謂漲霧騰擲疊魯縞連延橫越布回風時卷散叢  
 薄振羣鷺初日照崖岸琪花滿瑤圃白帝會青君  
 萬里馳玉輅特地張帝幕素靈皆來赴不然炎方  
 中寧有雪霰聚蠻人向我言青盤在前路要我留  
 雪詩千秋傳好句通峴對絕頂駐輿屢回顧茲山  
 不甚高茲寫常如故於焉觀物理援筆聊一賦通峴

卽山名

次權佐愁里峴韻

誇放達。苦吟舌本乾。相橘煩采掇。我形何役役。我心常忽忽。正事有嚴程。黽勉敢言疾。

琵琶湖次權試韻

湖水西走海。客子向東路。窮荒異氣候。潛岸交碧樹。衮衮流不盡。行行日將暮。重壕勢屈曲。長城何壯固。時看片帆遠。仍思漁釣趣。野畝半植茶。山田亦種芋。市廛連百里。商賈紛馳騖。徃徃問地名。殊音多舛誤。况乃尋河源。誰能知掌故。

佐護望雪山

倭名青盤山  
野馬日本一谷

南雪不到地。海天苦多雨。野馬實竈荒。我来值歲

之處造化得意而成者也比之昨日所見十二瀑則  
細柳之真將軍棘門灞上之兒戲必有餘下之者矣  
臺下路絕險下臨無地間多石嵒鑿鑿惴惴然如將  
隕墜班孟堅幽人之夢無或類此歟向寒溪巖遇水  
石佳處舍輿息肩酌溪水澆飯而喫溪上有巨巖巖  
之左右行風輝映請名之曰停車巖喻巖是為五色  
石峰峭拔羅列亦雪嶽之一支也止宿于五色村初  
八日壬申早起飲藥水五椀儘覺數日勤苦事盡向  
毛孔散也踰涼峴則官吏持人馬來待矣噫世之譚  
山水者必以楓嶽雪嶽并稱邑誌又曰白頭以南雪

遊寒溪錄

乙亥余守襄陽與崔暹景裴景孚及二子勵勗將遊  
寒溪自岷山城踰香岷歇馬于寒巖東臨滄海雲濤  
茫茫西瞻雪岳石角峨峨况積雨新霽纖雲四捲未  
到寒溪逸興先飛下嶺五里許有洞窈窕名曰白巖  
數椽茅屋獨占一壑烟霞眞箇畫中孤村也西行二  
里許渡一澗彷徨四顧得一巒麓壁立千尋雙溪挾  
流亂瀑噴玉下有石潭澄淨上有蒼松交翠眞絕勝  
區也遂移石築臺列坐其上此八仙區第一程也使  
蹈景名之曰雙瀑臺使景孚白書于老栢榦又令童

下小室。不蔽風日。室下海濤激石。山形如掀。屋板長  
鳴。余下至洞口。雲山與僧繼千來迎我。至寺。智生出  
迎館待。甲午平明。余坐亭上望出日。智生饋朝飯。引  
余見觀音殿。所謂觀音像。技極精巧。若有精神焉。殿  
前有正趣殿。殿中有金佛三軀。余出道南路西轉而  
行。行將二十里。至襄陽府前川上歇馬。又行十里。入  
雪岳。陟所於嶺下峴。則川水在左。峰巒在右。過盡山  
麓。涉川流而左。山明水秀。白石交加。略如金剛山大  
藏洞。沿流而上。至五色驛。山月已白矣。是日陸行三  
十里。山行四十里。乙未發五色驛。度所牽嶺。雪岳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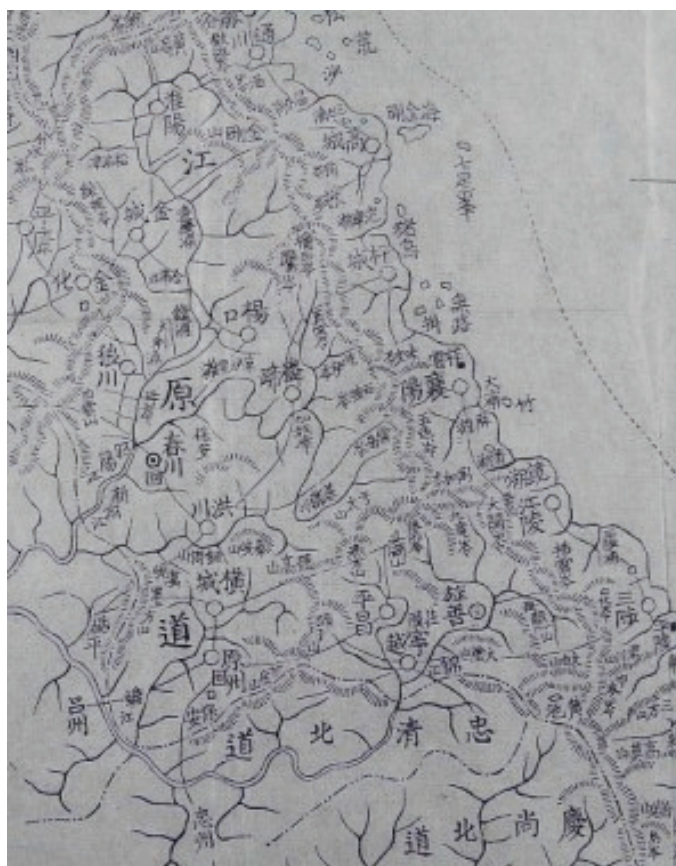


馬過新院。又行十五里。有川自雲岳西面而來者。與所率川合流。至元通驛。下爲大江。前至元通。山川曠莽甚佳。自元通履平地。又行二十五里。涉元通川。麒麟縣水於此合流。循江行五里。宿麟蹄縣。是日。山行六十里。陸行三十里。丙申。乘舟渡瓶項津。西南行過船遷。又西南行過萬義驛。又行山間入洪川境。宿泉甘驛。總行八十里。丁酉。又西南行越馬嶺。又西南行。循大江而下。過仇叱遷。迎逢驛。行六十里。赴洪川縣。見縣監伯起同宿。戊戌。乘舟渡前江。越掛棧嶺。歷百同驛山。後過砥平縣。又過天谷院。西南八石徑。是日。

嶂。無慮數十餘。峰皆頭白。溪邊石木亦白。俗號小金  
剛山。非虛語矣。雲山曰。每八月。諸山未霜。而此山先  
雪。故云雪岳。嶺上石間。有八分書一絕云。生先檀帝  
戊辰歲。眼及箕王號馬韓。畱與永郎遊水府。又牽春  
酒滯人間。墨跡尚新。書之必不久也。世無仙者。豈非  
好事者偶題歟。然子程子以國祚之祈天永命。常人  
之至於聖人。以此修煉之引年。浚山大澤之中。亦有  
這般等人。未可知也。讀其詩。令人有出塵之想。余於  
嶺上辭東海。下嶺西南行樹底。道塗險絕。洞壑幽深。  
折取丁香花。插馬鞍。以聞香。過眠巖。行將三十里。歇

板屋無僧。龕有小佛。厨外剝木受泉。坐北向南。左右層巒。龍虎翼翼。南望列岫。突兀軒豁。呈露崖谷。冰雪皓然。百淵派民池。一尚者來待。僧覺炯。廣學亦同行。夜宿庵內。焚香明燭。耿耿不寐。翌朝。由庵北行數百步。至上乘庵。庵燬於火。處勢益高。所見益佳。轉上山脊五里許。至山巔。山之北。雪深一尺。以坐而左右望。內外山勢。皆入眼中。問於覺炯。池漠而指點。上雪嶽。鳳頂庵在東曲。百淵在東北。而嵐靄杳冥。不可辨。五色嶺上。筆如峯。在東南。而在北。嶺然平看者。彌是嶺也。去輿而下。山坂峻急。冰雪沒蹠。不能著足。或超越

자료 22 : 대한전도



자료 23 : 해동지도



자료 24 : 동여도



자료 25 : 조선지도(양양부)



자료 26 : 조선지도 (인제현)





자료 27: 비변사인방안지도(양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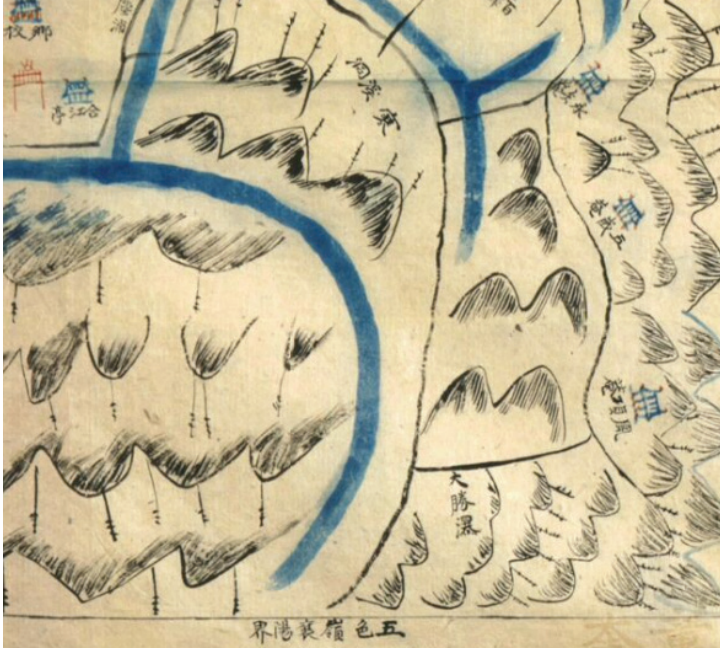
자료 28 : 대동여지도 (인제)



자료 29 : 지방지도(양양)



자료 30 : 지방지도(인제) 1872



자료 31 : 관동지도(인제)



자료 32 : 광여도(인제)



자료 33 : 광여도(인제)



자료 34 : 광여도(양양)





자료 35 : 대동방여도



자료 36 : 여지도(인제)



자료 37 : 조선팔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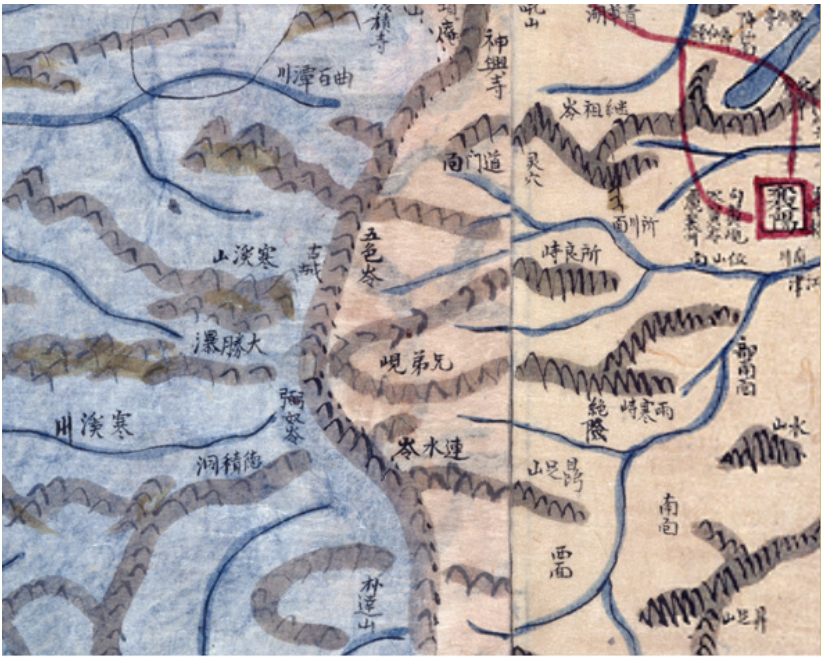
자료 38 : 좌해지도(인제)



자료 39 : 청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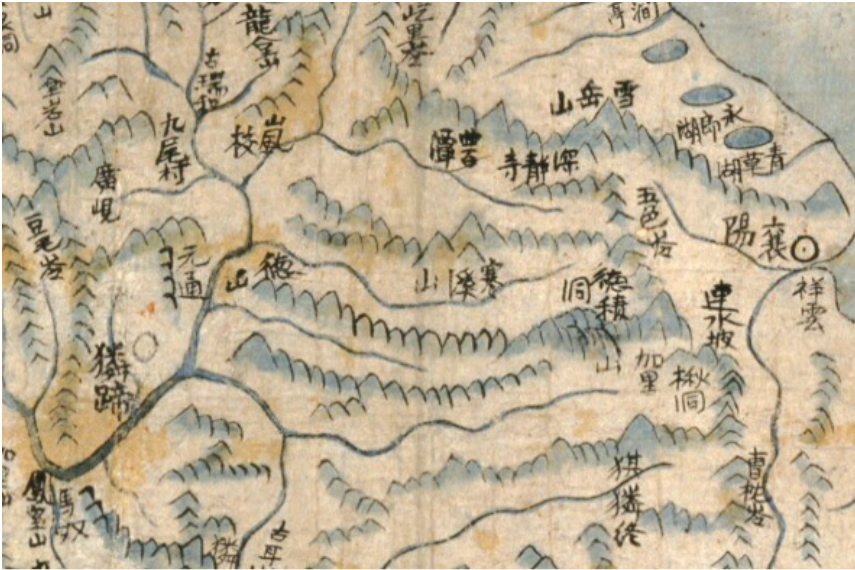
자료 40 : 청구도



자료 41: 청구도



자료 42 : 팔도분도(인제)





자료 43 : 팔도지도 1



자료 44 : 팔도지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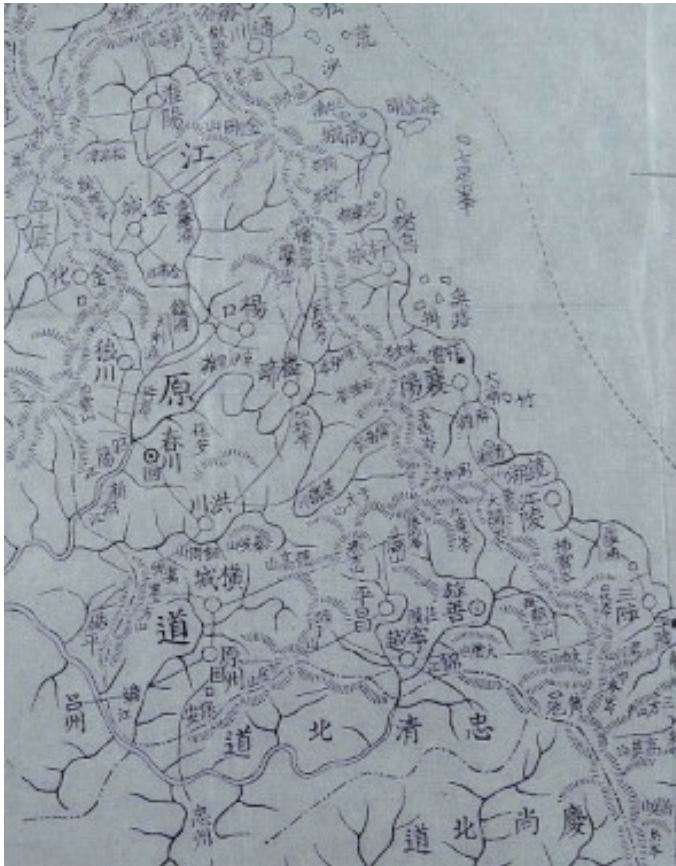
자료 45 : 팔도지도 4



자료 46 : 팔도지도 5



자료 47: 대한전도



## 최병헌(崔秉憲)

국사편찬위원회 향토사료조사위원(2000~)  
『문학세계』시 신인상 수상 문학세계사(1991)  
인제군민 대상(문학부문) 인제군수(2004)  
강원도민문화상(향토사부문) 강원도지사(2008)  
시집 『이야기가 그리운 날』 외 2권  
인제를 소재로 한 국역 『漢詩集』출간(2004)  
인제를 소재로 한 국역 『散文集』출간(2005)  
설악산 百潭寺 출간(2013)

한계령(寒溪嶺)과 오색령(五色嶺) 지명에 관한 고찰(考察)

초판 인쇄 2012년 12월 20일

초판 발행 2012년 12월 31일

엮은이 최병현

기획인 백창현

펴낸이 남덕우

펴낸 곳 인제문화원 (033)461-6678 / 팩스 (033)461-0220

편집 · 인쇄 마루금기획 (031)-954-0711

비매품

※ 이 책은 군비 보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인제문화원

